



vol.170 **2021.1.**
Hanwoo Journal

한우마당

제 22권 제1호(통권 170호)
2021년 1월 1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홍길
인쇄처 팜커뮤니케이션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 화 (02) 525-1053
(02) 597-2377
팩 스 (02) 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CONTENTS

이달의 사진

- 41** 2021년, 행복하소 그리고 건강하소
- 42** 물난리 이겨낸 쌍둥이 송아지, 신축년 희망가

- 44** 신년사
- 46** 신년 인터뷰 _ 회장 김홍길

특집 |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 우리 한우 이야기

- 52** 2021년 신축년 소띠 해의 의미
- 54** 흰 소의 해 주인공, 백우 이야기
- 56** 한우개량사업 50년, 한우는 얼마나 달라졌나
- 58** 소와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은?

한우와 사람

- 69** 축산환경 문제 큰 고민... 새해엔 규제보단 희망을
소띠 여성한우인 _ 경기 양평군 전미영
- 72** 힐링명소 한우체험목장 건설이 꿈
소띠 청년한우인 _ 충북 괴산군 신승재
- 75** 어린송아지 설사병 원인과 극복방안
- 80** 번식우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 '퓨리나 한우마을'

정보마당

- 85** 한우사육 백문백답
- 88** 한우동향분석
- 99** 사료 수급·이용실태 및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 108** 2022년 제2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 안내
- 112** 알아두면 편리한 축산농가 소득 요령
- 113** 2020년 제 4차 이사회 영상회의 개최
- 114**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시행중
- 115** 본화-GS리테일 업무 협약식 개최
- 117** 협회전용사료 '대한한우' 1월 사료가격



2021년, 행복하소 그리고 건강하소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날인 1일 강원도 평창군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의 소들이 해를 맞이하며 산기슭을 걷고 있다.

‘신축년(辛丑年)’은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소띠 해다. 띠 해는 여유와 평화의 한해이다 소띠 해는 을축(乙丑)→정축(丁丑)→신축(辛丑)→계축(癸丑)의 순으로 육십갑자에서 순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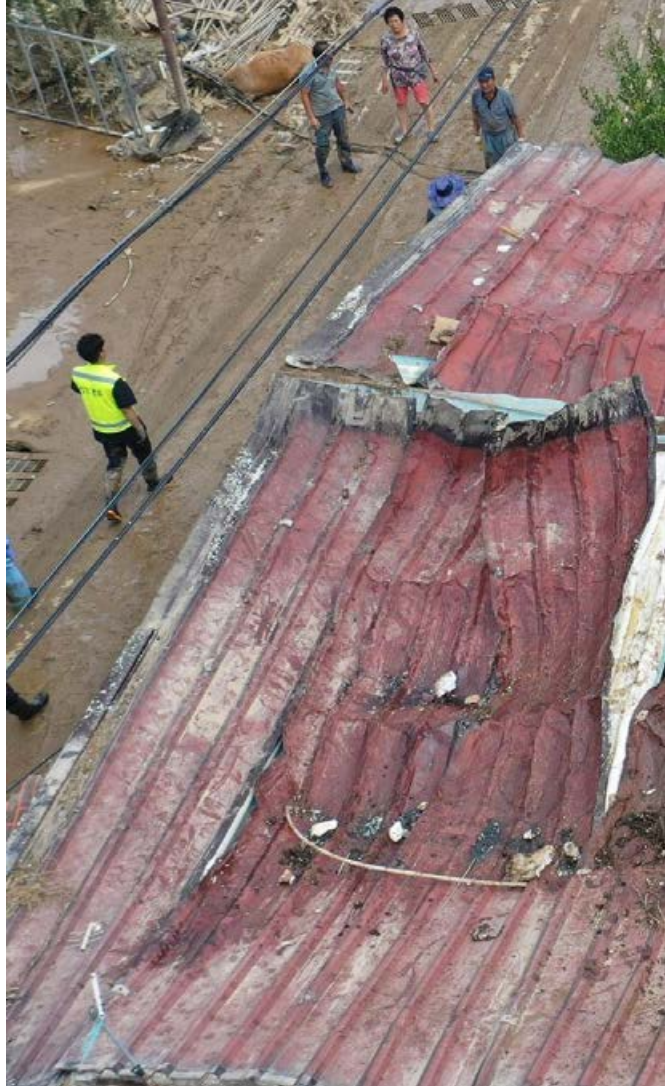
소가 십이지의 두 번째 동물이 된 일화로 ‘소는 자신이 느리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출발하여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했음에도 소뿔에 매달려 타고 온 꾀 많은 쥐가 갑자기 뛰어내려 결국 쥐가 십이지신의 첫 번째가 되고, 소가 2등으로 밀려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옛부터 소는 힘과 우직함을 상징하고 참을성이 많으며 묵묵히 일하는 근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소의 속성이 한국인의 정서 속에 녹아들어 여러 가지 관념과 풍속을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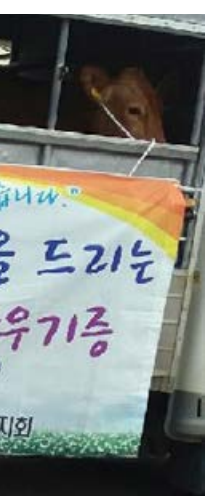
물난리 이겨낸 쌍둥이 송아지, 신축년 희망가

지난해 8월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기록적인 폭우로 소들이 살기 위해 산꼭대기와 지붕 위 등으로 대피하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장면이다. 당시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이틀만에 마취총을 맞고 구조된 소 가운데 암소 한 마리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아 화제다.

비록 정상적인 송아지보다 성장은 더디지만, 큰 병 없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송아지의 이름은 '희망이'와 '소망이'이다. 쌍둥이 송아지는 수해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마을 주민들과 수재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며 구례의 상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 온정을 나눈 광주·전남도지회 장흥군지부와 구례군지부의 미담도 회자되고 있다. 보성농장의 수해보도를 접한 장흥군지부는 안타까운 소식에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직접 암소를 기증하기도 했다. 최악의 물난리를 이겨내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쌍둥이 송아지 소망이와 희망이의 소식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수해로 황폐화된 농민들에게 신축년 응원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한우인들의* 튼튼한 우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한우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신축년(辛丑年), 그 어느해보다 반가운 소의 해에 부푼 희망과 설렘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소의 신성한 기운이 우리 한우인들을 비롯한 농축산업인 모두의 삶에 행복을 불어넣어주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맹위가 매서운 가운데 지난 한 해는 태풍, 홍수까지 덮쳐 한우인에게 아픈 시련을 안겨준 해였습니다. 급변하는 상황과 많은 위기속에서도 한우농가를 비롯한 협회 임직원 모두가 더 나은 한우산업을 위해 우직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한 일 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우농가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온정을 모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거나 직접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농업·농촌 지도자로서 사회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위기였지만, 감사하게도 국민들은 한우를 더욱 찾아주었습니다. 한우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한우사랑상품권, 온라인이벤트, 한우 부산물할인판매 및 가정간편식 등은 한우협회가 소비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혁신적으로 내딛은 발걸음이자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룬 값진 성취입니다.

전국의 한우인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은 시작부터 이미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 증가와 가격하락 위기 경고음이 커지는 만큼, 한우농가의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농가 여러분들의 열망과 시대의 흐름을 모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2021년에도 미래를 내다보며 한우산업의 근간을 반듯하게 세우는 일들에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들이 한우산업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긍심의 뿌리가 되고 결속력을 더욱 높이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인들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전국한우협회장 김 홍 길

수입 물량 늘고 사육두수 증가세
올해 한우산업 전망 밝지 않아
소띠해 국민들에 한우 홍보 힘쓸 것

농가, 미경산우 비육 및 자육감축 참여
정부, 소비 촉진·생산 안정에 예산 투입

2021년 한우산업, 적정사육두수 유지가 숙명적 과제

■ 인터뷰 _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3262호(2021.01.08) 7면





한우 사육두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출하두수도 예년보다 크게 증가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탄탄한 소비 기반 속에 안정적으로 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다. 김홍길 회장으로부터 2021년 한우산업과 축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020년 한우산업을 평가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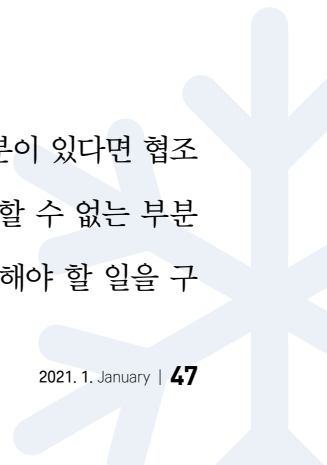
김홍길 “한우산업은 안정적인 기조 하에 진행됐다. 농가들의 소득 측면에서는 괜찮았다. 다만, 한우 사육두수 증가 등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감과 축산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약했다. 여전히 축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운 한 해였다.”

코로나19가 한우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김홍길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으로는 여러 악재가 생겼다. 하지만 한우산업에서는 한우고기의 우수성이 한층 증명됐다. 한우가 안전하고 깨끗한 국내산 쇠고기로서 수입육과 차별화됐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자리 잡은 2020년이다. 사실 그동안 식당에서는 금액 등의 이유도 있지만 식당에서도 속이고 둔갑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은 수입육을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식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가족들만큼은 한우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겼다. 코로나19로 가정 소비 늘었고 국민들이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중요성을 생각해주면서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됐고 이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생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축산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김홍길 “농가들도 환경 규제를 어느 정도 숙지하면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은 해결하는 것이 숙명이다. 다만, 농가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와 농가, 농협이 해야 할 일을 구



분해서 진행된다면 축산 환경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생산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길 바란다.”

2021년은 소띠해다. 한우농가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김홍길 “올해는 한우인으로서 의미 있는 한 해다. 한우는 5000년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가축이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일을 함께 했고 지금은 경제적 동물로 바뀌어 농업·농촌에 경제적 측면에서 최고의 작목으로 안착했다. 농촌사회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한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한우인들은 지역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진행하고 경종 농가·주민들과도 화합하고 베풀며 함께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시간 준비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국민들에게 한우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추진하겠다.”

2021년 축산업과 한우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김홍길 “올해 쇠고기 수출국들의 관세가 떨어져 수입 물량은 더욱 늘어나고 국내 사육두수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한우산업의 올해 전망은 밝지 않다. 결국 농가들이 분산 출하해 가격 조절에 나서 적정사육두수를 꾸준히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이 숙명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우 소비 촉진 운동과 캠페인 등을 펼치겠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 농가들도 미경산우 비육 등에 참여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한다면 희망이 보일 것이다.”

올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한우산업의 현안은 무엇인가.

김홍길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려면 생산 측면에서는 정부가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비육우 경영안정제를 적극 검토해 현장에 맞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이지만 올해 정부 예산에 비육우경영안정제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농가들은 소비자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농장 방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 한우가격 하락 전망이 지배적이다.

각자의 역할은?

김홍길 “정부는 이력제 모니터링을 통해 한우 쏠림 현상, 홍수 출하 등이 되지 않도록 지표를 잘 설정하고 한우협회와 함께 농가에 홍보해야 한다. 여기에 농가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농가들은 정부와 한우협회 등의 정보를 잘 활용해서 홍수 출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에만 신경 쓰지 말고 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생산 안정 등에도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대책과 방역 정책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

올 하반기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이 예상된다.

김홍길 “가축사육관리업을 시행한다는 명분 아래 농가들의 자율성이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



99

농가들도

미경산우 비육 등에

참여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한다면

희망이 보일 것이다.

66

에선 이 같은 제도 시행을 불안하고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을 반대한다.”

올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현장 준비 상황은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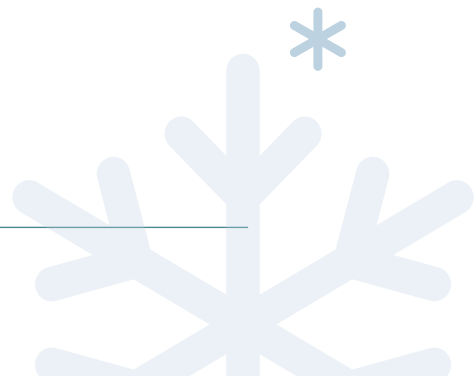
김홍길 “여전히 현장에서는 농가들이 다룰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고 퇴비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농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줘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고 농가들이 준비하는 속도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 1년 동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소회 한 마디 말해 달라.

김홍길 “사실 기대하고 갈망했던 만큼 농특위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농가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접근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의제로 올라오지 않은 채 큰 틀에서 접근해 아쉬웠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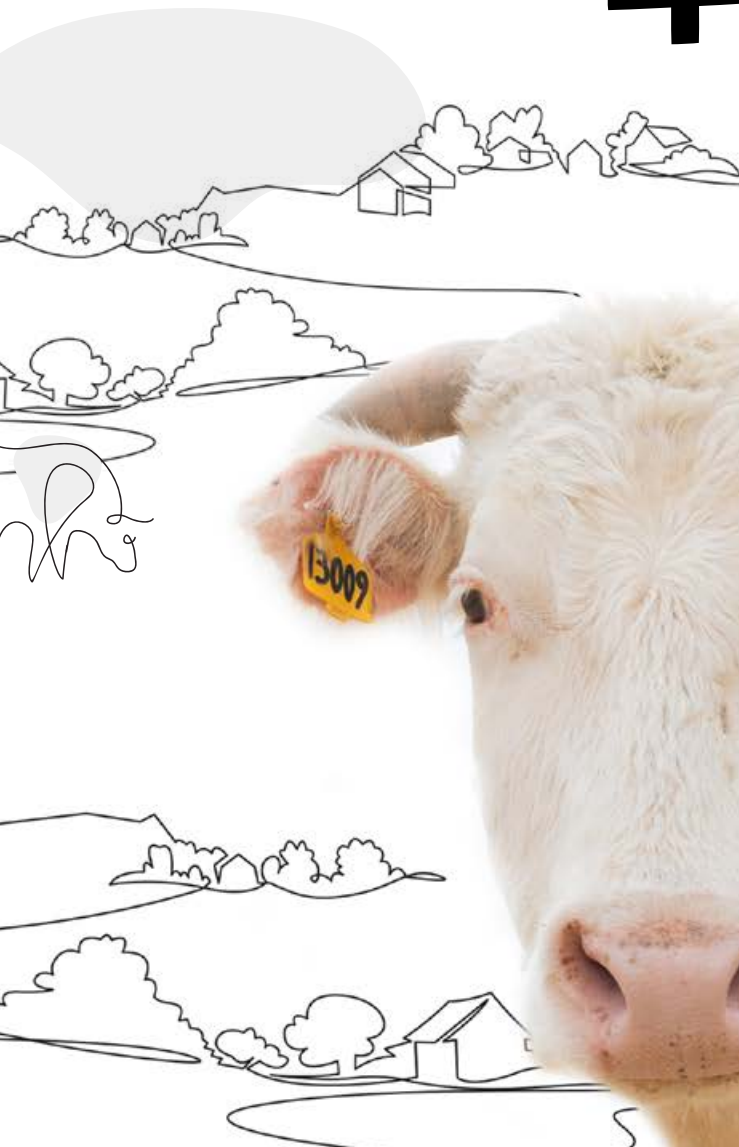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인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한다.

김홍길 “한우농가들이 그동안 협회를 믿고 함께 해준 점 감사하다. 생산자단체로서 미약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농가들은 올해 지역 활동에 적극 동참해 경종농가 등과 나누고 베풀며 함께 가는 한 해를 만들기 바란다. 이 같은 활동이 한우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의 발전이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

우리 한우 이야기



2021년 신축년 소띠 해의 의미
흰 소의 해 주인공, 백우 이야기
한우개량사업 50년,
한우는 얼마나 달라졌나
소와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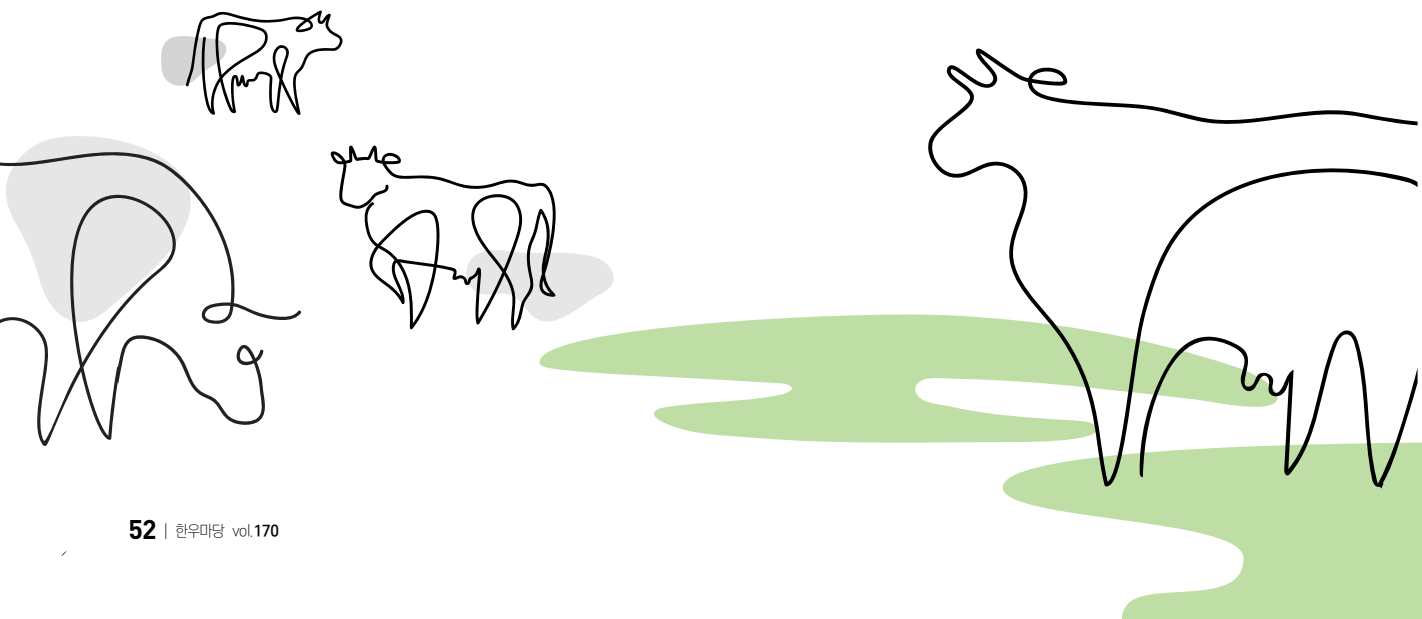




2021년 신축년 소띠 해의 의미

2021년 신축년은 흰 소띠의 해로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한다.

상서롭다는 말은 복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의미로 '소가 말이 없어도 열두 가지 덕이 있다'는 속담처럼 묵묵하게 우리의 할 일들을 충실히 해 간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란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 해를 상징하는 동물은 십이지신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십이지신이란 땅을 지키는 12가지 동물로 ▲자(子: 쥐), ▲축(丑: 소), ▲인(寅: 호랑이), ▲묘(卯: 토끼), ▲진(辰: 용), ▲사(巳: 뱀), ▲오(午: 말), ▲미(未: 양), ▲신(申: 원숭이), ▲유(酉: 닭), ▲술(戌: 개), ▲해(亥: 돼지)이다.

| | |
|--------|---|
| 십간(干) |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 |
| 십이지(支) |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 |



또, 그해의 띠 색은 하늘의 이치를 담았다는 10간(干)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10간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서부터 2개씩 짝을 지어 ▲갑과 을은 청색, ▲병과 정은 붉은색, ▲무와 기는 황색, ▲경과 신은 백색, ▲임과 계는 흑색을 상징한다.

그래서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흰색에 해당하는 천간 '신(辛)'과 소에 해당하는 지지 '축(丑)'이 만나 '흰 소띠해'가 된 것이다. 십이지의 소(丑)는 방향으로로는 동북 시간적으로는 새벽 1시에서 3시 달로는 음력 12월을 지키는 방향신(方向神)이자 시간신(時間神)이다.

여기에 소를 배정한 것은 소의 발톱이 두 개로 갈라져서 음(陰)을 상징한다는 것과 그 성질이 유순하고 참을성이 많아서 씨앗이 땅 속에서 싹터 봄을 기다리는 모양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흰 소의 해 주인공, 백우 이야기



경남 함양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백우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 했던 흰 색 한우인 백우는 1399년 발간된 조선시대 수의학서인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의 기록을 보면 과거 우리나라에는 칠폐소, 흑우, 백우, 청우, 황우 등 다양한 털색(모색)을 가진 한우가 존재했다. 조선시대 신윤복, 김홍도의 풍속화 우경도에서 황소, 흑소, 칠폐소 등 다양한 털의 색깔을 가진 소들을 볼 수 있다. 또 고구려 무용총에서 누렁소·검정소·칠폐소가 마구간에서 먹이를 먹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털색 개량의 방향을 황색으로 고정하게 되었으며, 황색 한우를 제외한 백우, 칠폐소, 흑우, 제주흑우 등 한우는 잡소로 취급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됐다.

현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등재된 한우 품종은 황우(누렁소), 흑소(검은소), 제주흑소, 칠폐소(호피무늬소), 백우(흰소) 총 5종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09년 정읍과 대전에서 백우 암소 2마리와 수소

한우의 품종 |



한우(일반 한우) :
몸 전체가 누런 황갈색을 띠



칠평소(칠평한우) :
짙은 갈색바탕에 검은 줄무늬를 가짐



흑우(흑한우) :
몸 전체가 흑색을 띠



백우(백한우) :
몸 전체가 흰색을 띠

1마리를 수집했다. 3마리로 시작한 백우 복원은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개체 수를 늘려왔으며, 현재 가축유전자원센터(경상남도 함양군)에서 2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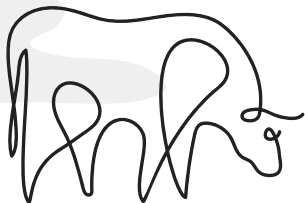
멸종위기단계인 백우는 일반 한우 부모로부터 100만분의 1 확률로 태어나는 유전적 돌연변이다. 선천적으로 체질이 약하고 시력이 좋지 않아 먹기 경쟁에서 밀려나기 쉬워 폐사율도 높은 편이다. 축산과학원은 연구를 통해 백우가 황색 한우와는 같은 계통이지만 백색증(알비노)으로 털이 흰 색이며, 흰색 계통인 외래 품종 샤롤레와는 전혀 다른 우리 고유의 한우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음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20년부터 백우, 칠평소, 흑우 등 희소한우의 유전 특성을 분석하고 과배란 처리, 성관별 등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해 가축 무리를 조성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우개량사업 50년, 한우는 얼마나 달라졌나

1974년
한우 출하체중 **358kg**



2019년
한우 출하체중 **694kg**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 연도 | 출현율 |
|-------|-------|
| 1993년 | 10.7% |
| 2019년 | 88.8% |

2019 한우소비·점유율

| 구분 | 2010년 | 2019년 |
|-----------------------------|-------|-------|
| 1인당 쇠고기 소비량(육우, 수입쇠고기 등 포함) | 8.8kg | 13kg |
| 1인당 한우 소비량 | 3.1kg | 4.1kg |
| 한우 점유율 | 36.5% | 32% |

자료: 2020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우리나라 한우개량사업은 1969년부터 시작됐다. 1974년 한우 출하체중은 358kg이었으나, 개량과 가축 사양기술의 발달로 2019년에는 694kg으로 체중이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소도체 등급판정 제도 시행 초기인 1993년 10.7%에서 2019년 88.8%로 증가해 육질도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부터 1982년까지 한우 사육가구의 평균 마릿수는 2마리가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한우 마릿수는 307만 8,000마리, 가구 수는 9만 4,000가구로 가구당 약 34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산업의 규모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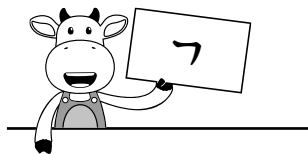
우리나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970년 1.2kg, 1980년 2.6kg 정도였지만, 2010년 8.8kg, 2019년 13.0kg으로 크게 늘었다. 한우 소비량은 2010년 3.1kg, 2019년 4.1kg으로 늘고는 있지만 한우 점유율은 2010년 36.5%에서 2019년 32%로 낮아지고 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를 팔아 대학 등록금을 낸다는 말이 있었다. 실제로 1978년 한우 1마리 가격은 약 58만 원이었으며, 국립대학교 연간 등록금은 5만원에서 11만 4,000원 정도로 소 한 마리를 팔면 자녀 한명의 4년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는 소 값으로 1년 대학 등록금 내기가 어렵다. 2020년 연간 평균 대학 등록금은 약 670만 원이며, 한우 산지가격은 2020년 11월 수소(거세우) 기준 약 542만 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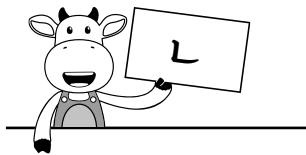
소와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은?

오랜 시간동안 우리와 함께해 온 소는 관련 속담도 무수히 많다. 속담에서의 소는 대부분 근면, 힘이 센, 농가의 재산, 고집스러우면서도 투박한 모습 등을 보이고 있다. 선조들은 소의 성품이 우직하고 순박하며 성급하지 않은 천성과 끈기, 여우로움이 우리 민족 기질과 닮았다고 하여 특히 아끼고 사랑했다. 소와 관련된 속담은 2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우리나라 민속에는 특히 소가 많이 등장한다. 속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가 우리 전통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단순한 가축의 의미를 뛰어넘는 한 식구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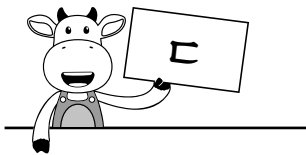
1. **가난이 소 아들이라** ▶ 소처럼 일해도 가난에게 벗어나기 힘들다.
2. **가을 참게는 황소가 밟아도 안 부서진다** ▶ 가을 참게는 속이 짝 들어 차서 맛있다.
3. **가을 물은 소 발자국에 고인 물도 먹는다** ▶ 가을 물은 맑고 깨끗하다.
4. **같은 값이면 검정 송아지** ▶ 같은 조건이면 좋은 것을 고른다.
5. **같은 값이면 검정소 잡아먹는다** ▶ 같은 조건이면 좋은 것을 고른다.
6. **같은 외상이면 검정소 잡아먹는다** ▶ 같은 조건이면 좋은 것을 고른다.
7. **개 쇠 발팔 누가 알꼬** ▶ 일리 없이 지껄이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8. **개천에 든 소** ▶ 풍족한 상황에 놓인 사람
9. **걸음새 뜬 소가 천리를 간다** ▶ 꾸준히 인내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10. **검은소가 맛은 있다** ▶ 겉모습은 볼품 없어도 실속있다.

11. 겨울 소피는 팔자가 편하다 ▶ 시절만 잘 타고나면 편하다.
12. 겨울 소 팔자다 ▶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
13. 과부 좋은 것과 소 좋은 것은 동네에서 나가지 않는다 ▶ 질이 좋은 것은 누구나 귀히 여겨 가지려 한다.
14. 과부 집 송아지 백정 부르러 간 줄 모르고 날뛰다 ▶ 위급한 처지에 있으면서 함부로 호기를 부린다.
15. 관에 들어가는 소(의) 걸음 ▶ 겁을 내면서 벌벌 떠는 사람
16. 그늘에 누운 여름 소 팔자다 ▶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
17. 금년 새 다리가 명년 소 다리보다 낫다 ▶ 당장의 작은 이익이 나중의 큰 이익보다 더 이롭다.
18. 금방 먹을 떡에도 소를 박는다 ▶ 아무리 급해도 순서와 격식은 지켜야 한다.
19. 기운이 세면 소가 왕 노릇 할까 ▶ 힘만 가지고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20. 길마 무거워 소 드러누울까 ▶ ①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을 걱정하다. ②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부족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21. 꼬리없는 소가 남의 등에 파리 쫓겠다고 한다 ▶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한다.
22. 쫓지 없는 소 ▶ 모습이 보잘 것 없고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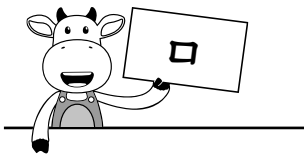
23. 나무도 크게 자라야 소를 땀 수 있다 ▶ 완전해야만 쓸모가 있다.
24. 나쁜 소도 좋은 송아지를 낳는다 ▶ 미천한 사람에게서도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 있다.
25. 남이 놓은 것은 소도 못 찾는다 ▶ 남이 놓아둔 물건은 아무리 큰 물건도 찾기 힘들다.
26. 남의 소 들고 뛰는 건 구경거리 ▶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불행은 구경거리로 여긴다.
27. 남의 소를 세는 소몰이다 ▶ 일할 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헛수고만 한다.
28. 남의 집 금송아지가 우리 집 송아지만 못하다 ▶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자기가 직접 가진 것이 더 낫다.
29. 남의 집 금송아지보다 제 집 돼지새끼가 낫다 ▶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자기가 직접 가진 것이 더 낫다.

30. 남자가 버는 것은 황소걸음이요, 여자가 버는 것은 가랑이 걸음이다 ▶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많이 번다.
31. 네 각담이 아니면 내 쇠뿔 부러지랴 ▶ 자기의 손해를 남의 책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말
32. 네 쇠뿔이 아니면 내 담이 무너지랴 ▶ 자기의 손해를 남의 책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말
33. 높은 데 송아지 간 발자국만 있고 온 발자국은 없다 ▶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무엇이 없어졌다.
34. 누워 뜨는 소 ▶ 매우 느리고 끈질긴 사람이나 행동
35. 누운 소 타기 ▶ 매우 쉬움
36. 누운 소 똥 누듯 한다 ▶ 어떤 일을 매우 쉽게 해낸다.
37. 누워서 찌르는 소 ▶ 보기에는 맥을 놓고 있는 것 같지만 매서운 데가 있는 사람
38. 눈 큰 황소 발 큰 도둑놈 ▶ 눈이 크거나 발이 큰 사람을 놀리는 말
39. 느린소도 성낼적 있다 ▶ 겉보기에 느리고 순한 사람도 화가 나면 무섭다.
40.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 속도는 느려도 믿음직하고 알차다.
41. 늙은 소 콩밭으로 간다 ▶ ①늙으면 먹는데 관심을 가진다. ②늙으면 경험에 따라 자기에게 이로운 일만 한다.
42. 늙은 소 흥정하듯 ▶ ①일을 빨리 끝내지 못하고 질질 끈다. ②행동이 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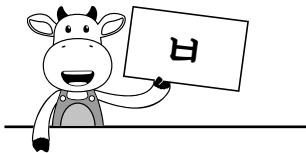
43.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이이다.
44. 닭의 뺨이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마라 ▶ 큰 단체의 말석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라.
45. 닭의 입(부리)이 될지라도 소의 꼬리는 되지 마라 ▶ 큰 단체의 말석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라.
46.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쓴다 ▶ 작은 일에 쓸데없이 큰 힘을 쓴다.
47. 닭 잡아 꺾을 나그네 소 잡아 꺾는다 ▶ 처음에 일을 소홀히 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다.
48. 닭 잡아 할 제사 소 잡아 하게 된다 ▶ 처음에 일을 소홀히 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다.
49. 대신 댕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 ▶ 남의 권력만 믿고 거만하게 군다.

50. **더위 먹은 소 달만 보아도 혈떡인다** ▶ 어떤 일로 고생하면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두려워한다.
51. **덴 소 날치듯** ▶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다.
52. **도둑놈 소 몰듯** ▶ 당황하여 서두르는 모습
53. **도랑에 든 소** ▶ 양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54. **동네 송아지는 커도 송아지란다** ▶ 항상 상대하는 것은 변화를 눈치채기 힘들다.
55. **돼지같이 먹고 소같이 일한다** ▶ 많이 먹고 열심히 일한다.
56. **되는 집에는 암소가 세 마리 안되는 집에는 계집이 셋** ▶ 첩을 두는 것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57. **두렁[두덩]에 누운 소** ▶ 편하고 팔자가 좋다.
58. **드문드문 걸어도 황소걸음** ▶ 속도는 느려도 믿음직하고 알차다.
59. **들넉소 머루 먹듯 한다** ▶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한다.
60. **들 적 며느리 날 적 송아지** ▶ 며느리는 출가 후에 일만 하고 산다.
61. **퐁구멍 찢린 소 모양** ▶ 어쩔 줄 몰라 찢쩍대는 모습
62. **뜨는 소도 부리기에 달렸다** ▶ 나쁜 사람도 잘 타이르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63. **튼 소 올 넘는다** ▶ 평소에 동작이 느린 사람이 뜻밖에 큰 일을 한다.
64. **띠엄띠엄 걸어도 황소걸음** ▶ 속도는 느려도 믿음직하고 알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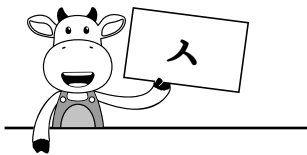


65.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 사람은 어려서부터 서울로 보내 공부를 시켜야 한다.
66. **말 갈 데 소 간다** ▶ ①안 갈 데를 가다. ②남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67. **말 갈 데 소 갈 데 다 다녔다** ▶ 온갖 곳을 다 다니다.
68. **말 살에 쇠 뼈다귀** ▶ 서로 관련이 없어서 얼토당토않다.
69. **말 살에 쇠 살** ▶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지껄이다.
70. **말 삼은 소 신[짚신]이라** ▶ 일이 뒤죽박죽되어 못쓰게 되다.
71. **말 탄 양반 끄덕 소 탄 녀석 끄덕** ▶ 덩달아 남의 흉내를 내다.
72. **먹는 소가 똥을 누지** ▶ 무슨 일이든 반드시 이유가 있다.

- 73. 목마른 송아지 우물 들여다보듯 ▶ 원가를 골똘하게 궁리하거나 해결방도를 찾지 못해 애쓰다.
- 74. 목맨 송아지 ▶ 남에게 끌려다니는 처지
- 75.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뽕이 난다 ▶ 되지못한 것이 엇나가는 짓만 한다.
- 76. 물 많이 먹은 소가 오줌 많이 누다 ▶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 77. 미련한 송아지 백정을 모른다 ▶ 경험해 보지 않았거나 어리석어서 사리에 어둡다.



- 78.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 작은 일도 때에 따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 79. 받는 소는 소리치지 않는다 ▶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치지 않는다.
- 80. 방둥이 부러진 소 사돈 아니면 못 팔아먹는다 ▶ 흠결 있는 물건을 잘 아는 사람에게 떠 넘기다.
- 81. 백정네 송아지 제 죽을 날 모른다 ▶ 남보다 잘 알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 결국 화를 입는다.
- 82. 병어리 소를 몰고 가듯 ▶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는 모습
- 83. 벼락 맞은 소[소고기] 뜯어 먹듯 ▶ 여럿이 각각 욕심을 채우려 하는 모습
- 84. 벼락에 소 뛰어들듯 ▶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허둥지둥하다.
- 85. 보지 못하는 소 멍에가 아홉 ▶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과중한 책임이 지워졌다.
- 86. 불난 강변에 댄 소 날뛰듯 ▶ 위급한 경우를 당해 날뛰는 모양
- 87. 빈 외양간에 소 들어간다 ▶ 일의 형편이나 외모가 좋아져 잘 어울리게 된다.
- 88. 빈집에 소 매였다 ▶ 없는 살림에 큰 횡재를 했다.
- 89. 뽕 빠진 암소 ▶ 모습이 보잘 것 없고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 90. 뽕 뺀 쇠 상이라 ▶ 지위는 있으나 세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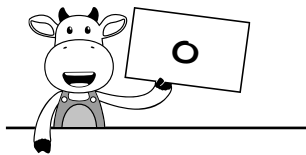


- 91. 사돈이 소 어울려 탄 것 같다 ▶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 92. 사름 송아지는 이도 들어 보지 말랬다 ▶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93. **살림이 거덜이 나면 봄에 소를 판다** ▶ 생활고가 심해지면 아무리 중요한 물건도 팔게 된다.
94. **젊은 소가 웃다가 꾸러미 깨지겠다(터지겠다)** ▶ 너무 어이없고 가소롭다.
95. **삼 동서가 모이면 황소도 잡는다** ▶ 동서가 많으면 큰일도 해낼 수 있다.
96. **새끼 많이(아홉) 둔 소 길마 벗을 날 없다** ▶ 자식이 많으면 고생하기 마련이다.
97. **새 잡아 잔치할 것을 소 잡아 잔치한다** ▶ 어떤 일을 소홀히 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다.
98. **설 젊은 소 대가리** ▶ ①말귀가 어둡고 고집이 센 사람 ②격에 어울리지 않고 멋이 없는 모습
99. **섬 속에서 소 잡아먹겠다** ▶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이다.
100. **성난 황소 영각하듯** ▶ 무섭게 고향치는 모습
101. **소가 밟아도 꿈쩍없다** ▶ 무척 튼튼하다.
102. **소가 짚겠다** ▶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103. **소가 크면(세면) 왕 노릇 하나** ▶ 힘만 가지고는 큰일을 할 수 없다.
104. **소 갈 데 말 갈 데 (가리지 않는다)** ▶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곳이라도 갈 수 있다.
105. **소같이 벌어서(일하고) 쥐같이 먹어라** ▶ 일은 열심히 하고, 검소하게 살아라.
106. **소 같이 일한다** ▶ 열심히 일한다.
107. **소 궁둥이에다 꼴을 던진다** ▶ ①아무리 힘쓰고 밑천을 들여도 보람이 없다. ②몹시 둔한 사람은 깨우쳐줘도 소용이 없다.
108. **소금 먹은 소가 물을 켜지** ▶ 무슨 일이든 반드시 이유가 있다.
109. **소금 먹은 소 굴우물 들여다보듯** ▶ 뭔가를 골똘하게 궁리하거나 해결방도를 찾지 못해 애쓰다.
110. **소는 농가에서 땅 다음가는 재산이다** ▶ 농가에서는 소가 매우 중요하다.
111. **소는 농가의 조상** ▶ 농가에서는 소가 매우 중요하여 조상처럼 위한다.
112. **소는 물고 말은 끈다** ▶ 모든 일을 이치에 맞게 해야 한다.
113. **소는 믿고 살아도 종은 믿고 못 산다** ▶ 사람은 동물만큼 믿을 수 없다.
114.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이이다.
115. **소 대가리에 말 궁둥이 갖다 붙인다** ▶ 일의 차례나 체계를 뒤바꿔서 한다.
116. **소더러 한 말은 안 나도 쳐더러 한 말은 난다** ▶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은 조심해야 한다.
117.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한다.
118. **소도 왕하면 돌아선다** ▶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질책
119. **소 뒷걸음질치다 쥐잡기** ▶ 우연히 공을 세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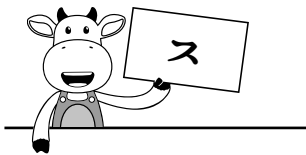
120. **소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 ▶ 아무리 하찮은 물건도 쓸 데가 있다.
121. **소피는 일이 되다** ▶ 소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보통 힘든 일을 하며 산다.
122. **소를 못 본 사람은 송아지를 보고도 크다고 한다** ▶ 아는 것으면 사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123. **소만 추위에 소 대가리 터진다** ▶ 소만 무렵에 날씨가 쌀쌀하다.
124. **소 먹이기 힘든데 꿩이질을 어찌할까** ▶ 일을 할 줄 모르는 선비를 비꼬는 말
125. **소 발에 쥐 잡기** ▶ 어쩌다 우연히 이루거나 알아맞히다.
126. **소 앞에서 한 말은 안 나도 어미[아버지] 귀에 한 말은 난다** ▶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은 조심해야 한다.
127.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일이 잘못된 후에 손을 써도 소용 없다.
128. **소 잡은 터전은 없어도 밤 벗긴 자리는 있다** ▶ 나쁜 일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잘 드러난다.
129. **소 죽은 귀신 같다** ▶ 성격이 고집이 세고 질기다.
130. **소 죽은 뉘을 덮어쓰다** ▶ 소처럼 행동이 매우 굼뜨다.
131. **소 탄 양반의 송사 결정이라** ▶ 이래도 끄덕이고 저래도 끄덕이니 종잡을 수 없다.
132. **소한테 물렸다** ▶ 엉뚱한 곳에서 뜻밖의 손해를 보다.
133. **소 힘도 힘이요 새 힘도 힘이다** ▶ 사람은 누구에게나 각자의 능력이 있다.
134. **송아지 못된 것은 엉덩이에 뽕 난다** ▶ 되지못한 것이 벗어나는 짓만 한다.
135. **송아지 천자 가르치듯** ▶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애써 가르치다.
136. **송아지 팔러 가는 날 아침에 송아지 엉치에서 뽕이 난다** ▶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 공교롭게도 장애가 생긴다.
137. **쇠고기 열 점보다 새고기 한 점이 낫다** ▶ 참새고기의 맛이 좋다.
138. **쇠고집과 닭고집이다** ▶ 고집이 무척 세다.
139. **쇠귀를 잡다** ▶ 맹주가 되다.
140. **쇠귀에 경 읽기** ▶ 깨우쳐 주려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141. **쇠귀에 염불** ▶ 깨우쳐 주려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142. **쇠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평소에 흔했던 것도 막상 찾으면 없다.
143. **쇠똥에 미끄러져 개똥에 코 박을 일이다** ▶ 부당한 일을 당해서 몹시 억울하다.
144. **쇠똥이 지짐떡 같으냐** ▶ 먹지 못할 것을 먹으려 하거나 이룰 수 없는 일을 바란다.
145. **쇠 말뚝도 꾸미기 탓이라** ▶ 못생겨도 잘 꾸미면 잘생겨 보일 수 있다.

146. **쇠 떡미래 같다** ▶ 고집이 세고 질긴 성격이다.
147. **쇠목에 방울 단다** ▶ 어울리지 않게 지나친 장식을 하다.
148. **쇠불알 떨어지면 구워 먹기** ▶ 노력을 하지 않고 요행만 바란다.
149. **쇠불알 떨어질까 봐 숯불 장만하고 기다린다** ▶ 노력을 하지 않고 요행만 바란다.
150. **쇠불알 떨어질까 하고 제 장작 지고 다닌다** ▶ 노력을 하지 않고 요행만 바란다.
151. **쇠불알 보고 화롯불 마련한다** ▶ 노력을 하지 않고 요행만 바란다.
152. **쇠뼈다귀 우려먹듯** ▶ 한 가지를 여러 번 이용하다.
153. **쇠뿔도 각각 염주도 뿔뿔** ▶ 무슨 일이든 각각 특성이 있어서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154.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빼라)** ▶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155. **쇠뿔 잡다가 소 죽인다** ▶ 문제점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더 망치게 되다.
156. **쇠 살에 말 뼈** ▶ 격에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음
157. **쇠코에 경읽기** ▶ 깨우쳐 주려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158. **쇠털 같은 날** ▶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나날들
159. **쇠털같이 많다** ▶ 셀 수 없이 많다.
160. **쇠털을 뽑아 제 구멍에 박는다** ▶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
161. **술 담배 참아 소 샀더니 호랑이가 물어 갔다** ▶ 돈을 쓸데는 써야 한다.



162. **아내에게 한 말은 나도 소에게 한 말은 나지 않는다** ▶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은 조심해야 한다.
163. **아침 아저씨 저녁 소 아들** ▶ 아침은 일하기 전이라 대접을 잘하지만 저녁은 일한 후라 함부로 대한다.
164. **아편 침 두 대에 황소 떨어지듯** ▶ 독한 기운에 금세 기운을 잃다.
165. **암소 곰달음** ▶ 고집만 내세우는 태도
166. **양을 보짜 낳는 암소** ▶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167. **어미 잃은 송아지** ▶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168. **얼음에 자빠진 쇠 눈깔** ▶ 눈동자가 흐리멍덩하고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면서 껌벅거리는 모습

169. 얼음판에 넘어진 황소 눈깔 같다 ▶ 눈동자가 흐리멍덩하고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면서 껌벽 거리는 모습
170. 여물 많이 먹은 소 똥 놀 때 알아본다 ▶ 죄를 저지르면 드러나기 마련이다.
171. 열 새끼 낳은 소 명예 벗는 날이 없다 ▶ 자식이 많은 사람은 편할 날이 없다.
172. 오뉴월 더위에는 암소 뿔이 물러 빠진다 ▶ 오뉴월 날씨가 무척 덥다.
173. 오뉴월 소나기는 쇠등을 두고 다룬다 ▶ 여름철에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내린다.
174. 오뉴월 쇠불알 (늘어지듯) ▶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나 축 늘어져 있는 사람
175. 오자기 안에서 소를 잡는다 ▶ 매우 소란스럽다.
176.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행동하다.
177. 우황 든 소 앓듯 ▶ 분을 이기지 못해 어쩔 줄 몰르고 괴로워하다.
178. 의붓아비 소 팔러 보낸 것 같다 ▶ 심부름하러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179. 의붓자식 소 팔러 보낸 것 같다 ▶ 믿을 수 없어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180. 이월 바람에 검은 쇠뿔이 오그라진다 ▶ 음력 이월에 부는 바람이 매섭다.
181. 일은 송곳으로 매운 재 굶어내듯 하고 먹기는 돼지 소 먹듯 한다 ▶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먹기만 많이 먹는다.



182. 쟁기질 못하는 놈이 소 탓한다 ▶ 자신의 능력 부족을 남 탓으로 돌린다.
183. 종년 간통은 소 타기 ▶ 지위나 권세가 있으면 못 할 일이 없다.
184. 중도 소도 아니다 ▶ 이도 저도 아니다.
185. 쥐 새끼(가) 쇠새끼보고 작다 한다 ▶ 자기보다 훨씬 큰 것을 보고 작다고 한다.
186.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187. 진상 가는 송아지 배때기를 찼다 ▶ 공연한 짓을 해서 큰 봉변을 당하다.
188. 집에 금송아지를 매었으면 내 알 게 무엇이냐 ▶ 좋은게 있어도 보지도 쓰지도 못하면 소용이 없다.
189. 집에 금송아지 안 매어 둔 놈 없다 ▶ 당장 증명할 필요가 없으면 누구나 허세를 부린다.

190. 쥐구멍으로 소 몰려 한다 ▶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다.



191. 칠월 개우랑 해에 황소 뽕이 녹는다 ▶ 음력 칠월에 늦더위가 심하다.

192. 칠월 송아지(다) ▶ 팔자가 늘어진 사람

193. 콩밭에 소 풀어 놓고도 할 말이 있다 ▶ 잘못을 하고도 잘했다고 구실을 늘어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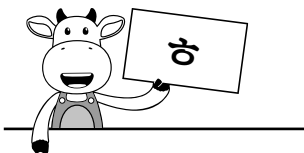
194.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큰 소 노릇 한다 ▶윗사람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그 일을 대신한다.

195. 큰 소 잃고 송아지도 잃고 ▶ 이중으로 손해를 입다.

196. 큰 소 큰 소 하며 쫓아다니지 않는다 ▶ 먹을 것을 아이들에게만 주고 어른들은 잘 돌보지 않는다.

197. 키 큰 암소 똥 누듯 ▶ ①일을 쉽게 하다. ②하는 짓이 어설피다.

198. 푸줏간에 들어가는 소 걸음 ▶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다.



199. 한 소 등에 두 길마를 (안장을) 지울까 ▶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시킬 수 없다.

200. 한 외양간에 암소가 두 마리 ▶ 같은 것끼리만 있어서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없다.

201. 흥두께로 소를 몬다 ▶ 무리한 일을 억지로 한다.

202. 흥두께 세 번 맞아 담 안 뛰어넘는 소가 없다 ▶ 인내심이 아무리 강해도 혹독하게 대하면 저항한다.

203. 황소 뒷걸음에 잡힌 개구리 ▶ 우연히 일을 이루거나 알아맞히다.

204. 황소 불알 떨어지면 구워 먹으려고 다리미 불 담아 다닌다 ▶ 노력을 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다.

205. 황소 제 이불 뜯어먹기 ▶ 자기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손해를 끼치다.

206. 힘 많은 소가 왕 노릇 하나 ▶ 힘만 가지고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207. 힘센 소가 왕 노릇 할까 ▶ 힘만 가지고는 큰일을 할 수 없다.

한우와 사람

- 소띠 여성한우인 _ 경기 양평군 전미영
- 소띠 청년한우인 _ 충북 괴산군 신승재
- 어린송아지 설사병 원인과 극복방안
- 번식우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 '퓨리나 한우마을'



1

소띠 여성한우인
경기 양평군 전미영

**무허가 축사, 퇴비 부숙도 의무화 등
규제 속 코로나19까지 겹쳐 타격
더욱 건실한 한우 전문 경영인으로 도약**

축산환경 문제
큰 고민...
새해엔 규제보단
희망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우를 즐겨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1973년생으로 올해 소띠해의 주인공인 전미영 씨에게 소는 친숙하다. 초등학교 시절 그녀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만든 우사에서 한우를 키웠던 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경기 양평군 개군면에서 한우(번식)를 사육하고 있는 전미영 씨는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소를 키우는 것이 직업 만족도가 더 높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경기 광주시 만선리에서 한우를 키우셨어요. 울타리를 넘어간 소를 동생들과 함께 찾으러 다니고 비닐하우스에 앉은 참새를 잡았던 기억이 나네요. 원래 여주

에서 육아에 전념한 주부였고, 한우 사육은 아버지가 바쁘실 때 우사 청소 등을 도와 주는 정도였어요”

지금은 한우를 사육한지 9년차에 이른 그녀지만 첫 시작은 소일거리 거드는 정도였다. 1남3녀 중 둘째로 다른 형제·자매들은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강원 양구 출신인 신랑도 어릴 때 소를 키웠기 때문에 소를 잘 안다. 그래서 물려받게 됐다고.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한우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소를 키워보니 달랐어요. 정액은 무조건 좋은 거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암소마다 맞는 정액이 있더라고요. 사육하는 과정에서 송아지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신랑도 일을 하느라 도와주기 힘들었고 주변 분들에게 도움요청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특히 한우가격이 폭락했던 2010년 초 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 씨는 지나온 힘든 시절을 떠올렸다. 2~3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은 그녀는 한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설한 한우전문대학을 다니며 이론을 배웠고 다른 농가들과 소통도 하고 공부도 하며 한우 경영인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22마리(번식 18두+송아지4두)를 가진 소규모의 송아지 생산 농가이지만 성적만큼은 우수하다. 이 농장의 최근 4년 동안 송아지 폐사율은 0이다. 양평 우시장을 통해 출하하면 수송아지는 통상 430만~470만원을 받는다. 작년에는 최고가 510만원을 받은 적도 있는 등 평균가격 보다 높게 받는 편이다. 실제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송아지(6~7개월령)의 평균가격은 수송아지 393만원, 암송아지 321만2000원이다. 전미영 씨는 평균 거래가격 보다 수 십 만원을 더 받을 만큼 우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개량에 맞는 정액을 사용해 송아지를 생산하고 송아지 예방접종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어릴 때 너무 많은 주사제를 투여하면 잘 크지 않는 만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잘 먹지 않는 아이는 다른 송아지와 함께 먹게 하면 잘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50두규모까진 사육할 수 있지만 20두~24두 정도만 사육하고 있어요. 밀집사육은 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또, 암소 육성의 경우 예방접종을 우선으로 해요. 통상 농가들은 12~13개월령에 첫 수정을 하는데 저는 13개월령 이상 키운 후 진행해요. 엄마로서 준비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전미영 씨는 이같이 사육노하우를 설명했다. 소를 닮은 착실하고 우직한 전미영 씨에게 고민거리는 몇 년 새 달라진 축산 사육환경이다. 2019년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비와 축사증축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또 한 번 큰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개선중이라는 전미영씨. 정부가 더 이상 규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전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한우 농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수입육 보다 더 맛있는 한우를 즐겨드시길 바랍니다. 트랙터 등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이 새해 목표예요”

그녀의 소박한 소망이 이뤄지는 2021년도가 되길 기원한다.



2 소띠 청년한우인
충북 괴산군 신승재

농촌에 온 젊은 부부와 갓난아이,
손주·손녀 된 듯 마을에 스며들어
세 살 아들과 함께 농장 쑥쑥 성장중

“힐링명소
한우체험목장
건설이 꿈”



소를 사육하고 번 돈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
한우체험목장을 운영하는 것이 꿈입니다.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암리에 사는 여물이네 가족은 한우 95두(번식우 60두·송아지 35두)를 사육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 여물이네 가족은 1997년생 동갑내기 신혼부부 신승재(24) 씨와 천혜린(24) 씨, 그리고 아들 신재호(3)군이다. 여물이는 신재호 군의 태명으로 ‘곡식이 알차게 익었다’라는 뜻의 ‘여물다’에서 비롯된 말이다.

젊은 부부가 농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또 한우사육뿐만 아니라 쌀과 배추, 고추와 감자 등을 농사짓는 모습은 불과 20~30년 전에는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지

만, 이제는 생소한 일이 됐다. 젊은 부부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농촌에서의 일상을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사람들은 흥미를 가졌고, 응원이 잇따르고 있다. 여물이네 엄마와 아빠는 지난 2019년 8월에 결혼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여물이가 태어났다. 엄마와 아빠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 시절이다. 천혜린 씨는 전남 보성에서 쌀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식량자원학과에, 신승재 씨는 한우사육 후계농이 되기 위해 한우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전혀 연결고리가 없던 이들을 엮어준 건 체육대회였다. 천혜린 씨는 가녀린 몸으로 씨름 경기 여성부에 서 우승을 했고, 그 모습에 반한 신승재 씨가 우승자를 만나고 싶다는 글을 대학 SNS에 올리며 첫 만남이 시작됐다.

결혼 후 남편의 고향인 괴산군 소암리에 축사와 신혼집을 꾸렸다. 이어 신승재 씨의 아버지가 하시던 한우사육 일부를 물려받아 아이와 함께 키워나가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한동안 끊겼던 농촌마을에 젊은 부부와 갓난아이가 들어오니 동네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반적인 젊은 사람답지 않게 짹짹하게 먼저 인사하고 마을 일에 참여하니 다행히 어른들도 좋게 봐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신다는 게 이들 부부의 설명이다.



천혜린 씨는 “마을은 공동체인데 결국 공동체 생활에 얼마나 잘 스며들고 적응할 수 있느냐가 귀농·귀촌의 관건인 것 같다”라며 “어른들이 먼저 다가와주길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 싹싹하게 행동하면 손주·손녀 같이 생각하고 대해주신다. 농촌 사회에 적응하는 건 결국 본인에게 달렸다”라고 강조했다.

한우사육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대학에서 한우학을 전공한 신승재 씨도 졸업 후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 소에게 시판배합사료만 투여하던 아버지에게 TMR(완전배합사료)을 권유했는데 거부하셨다. 결국 아버지를 모시고 TMR을 급여해 사육성적이 좋게 나온 농가들을 돌며 직접 보여드리니 설득이 됐다는 게 신승재 씨의 설명이다.

그는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농사를 짓거나 혹은 함께 농사를 지을 때 의견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게 젊은 농업인의 애로사항 중 하나다”라며 “무조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소통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여물이네 가족의 꿈은 소를 사육하고 번 돈으로 한우체험목장을 세워 운영하는 것이다. 한우만 사육할 경우 가격 변동이 큰 것 같다는 판단에 체험목장을 함께 운영해 수입의 다각화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천혜린 씨는 “지금까지 젓소나 다른 가축의 체험농장은 많았지만, 한우 체험농장은 잘 없는 것 같다”라며 “가족들과 연인들이 자연 속에서 편하게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한우목장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우 체험목장이 되는 게 꿈이다”라고 말했다.

신승재 씨도 “농업에 뛰어들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미숙하지만 아내와 함께 천천히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을 것”이라며 “주변의 많은 젊은 농업인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어린송아지 설사병 원인과 극복방안

■ 지엠디컨설팅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장이라면 공통적으로 문제를 겪는 어린송아지 사양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농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바로 송아지 설사병이다. 송아지 설사병만 점차적으로 줄여나기만 하더라도 농장의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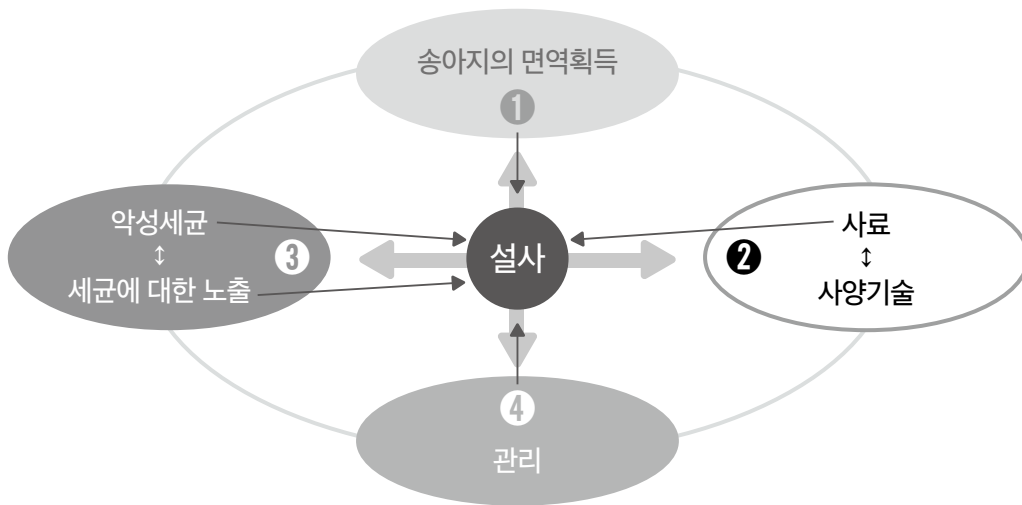
우사의 약 60%의 송아지가 설사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약 22%만이 생후 2주 이내에 치료에 들어간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수익성이 저하된다. 설사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추가적인 노동력까지 감안한다면 건강하게 송아지를 키울 때 보다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후 2년까지의 성장률 감소, 번식우 수정월령 지연, 분만월령 지연, 초산 우유 생산량 감소 등 당대 뿐만 아니라 다음 송아지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양한 송아지 설사발병 원인

송아지 설사의 원인은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의 감염, 질이 나쁜 대용유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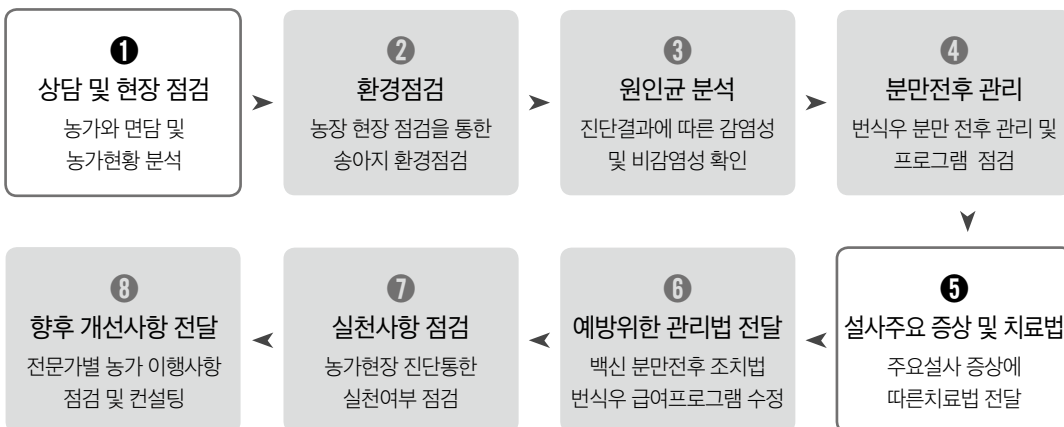
우의 섭취, 우유의 과다급여, 소화가 잘 안되는 탄수화물이나 거친 조사료 다량급여로 인한 소화장애, 갑작스런 사료변경, 어미소의 질병(유방염, 자궁내막염 등), 어미소의 비만, 어미소의 영양결핍(송아지 저항력 약화), 보온상태 불량, 이물 섭취, 장거리 수송 등 스트레스로 아주 다양하다. 이처럼 송아지 설사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송아지 설사의 위험인자들



설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발병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원인이 파악되어야 농장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아지 설사해결을 위한 컨설팅 프로세스는 <표1>과 같다.

<표1> 농가 송아지 설사 해결 컨설팅 프로세스



송아지 설사원인 파악을 위해 <표2>와 같이 주요 설사 발생일 및 직,간접원인 분석 원 인균 분석을 통해 감염성과 비감염성 설사발생비율, 분만전후 관리사항 변식우 급여프 로그램, 주변환경상황(수조, 바닥관리,환기,조사료 급여 및 관리)등을 점검하고 문제점 분석후 개선을 위한 방법을 조언한다.

<표2> 송아지 설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직, 간접 점검사항



| 항목 | Yes | No |
|---|-----|----|
| 본식 진행기에 수정하고 있는가 | | |
| 뿐만 아니라 여소 영입 관리는 적절한가 | | |
| 실시간 예민 박스를 검토하고 있는가 | | |
| 뿐만 시 촉주가 일회하고 청량하고 제작용 뿐만실에서 뿐만이 관리되고 있는가 | | |
| 뿐만 즉시 배급을 소독하고 있는가 | | |
| 뿐만 후 6시간 이내에 소우를 급여하고 있는가 | | |
| 소우 교육 전 여소 우방을 소독하고 있는가 | | |
| 송아지 전용 공간에 확보하고 있는가 | | |
| 송아지 전용 공간의 청결과 건조가 유지되고 있는가 | | |
| 대용량, 어린 송아지 사료, 조사료 및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가 | | |

| 구분 | 문면 형태 | 설명 이유 | 발생연령 | 발수 정도 | 처음 | 본면식 | 본면양 |
|-------------------|------------|------------------|---------|----------|----|------------|-----|
| 로타바이러스 | 심한 물 실사 | 중간·중간에 환변 | 2~30일령 | 심함 | 저하 | 황화색 | 없음 |
| 코로나바이러스 | 심한 물 실사 | 전반적인 환변 | 2~30일령 | 심함 | 저하 | 황화색 | 없음 |
| 소바이러스성설사 (BVD) | 묽은 변 | 중간·중간에 환변(점적) | 30일령 이후 | 역함 | 저하 | 녹황색 | 적음 |
| 대장균 | 밀가루 변죽 | 없음 (환변 내 거름) | 10일령 전후 | 역함 | 상승 | 황화색 | 없음 |
| 살모넬라 | 물 실사 | 전반적인 환변 | 20일령 전후 | 심함 | 상승 | 녹황색 | 중간 |
| 록시들 | 물 실사 | 전반적인 환변 | 30일령 이후 | 심함 | - | 적색 | 중간 |
| 크로스트스포리움 | 물 실사 | 전반적인 환변 | 30일령 이내 | 심함 | - | 적색 | 많음 |
| 식이성 | 다양함 | 없음 | 30일령 이내 | 역함 | - | 황화색, 백색 | 중간 |
| 본색증 | 묽은 변 | 없음 | 30일령 이후 | 없음 | - | 갈색 | 소량 |

송아지 설사 해결 포인트 '초유 섭취의 양과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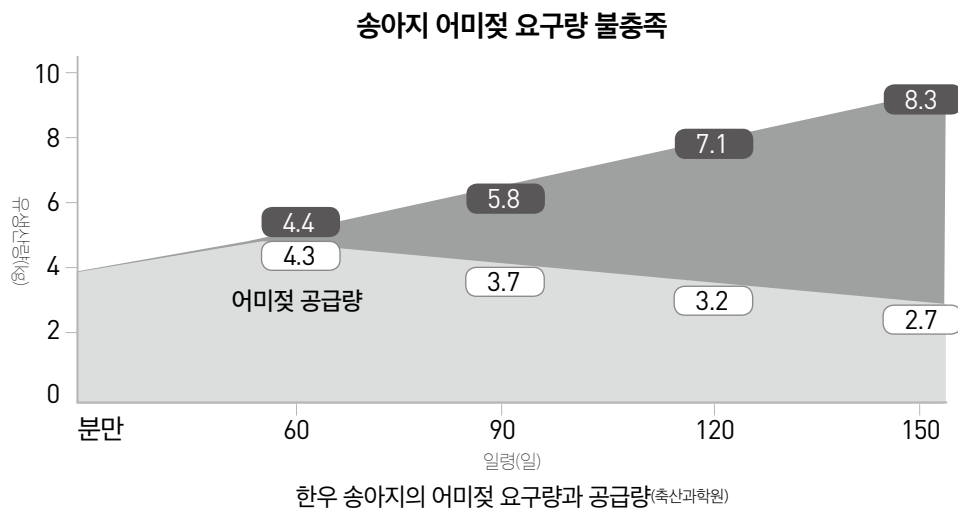
현장 컨설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컨설팅 항목을 요약한다면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송아지 설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키 포인트는 '초유섭취의 양과 질'에 있다.

소는 태아기에 어미로부터 태반을 통한 면역글로불린의 이행이 없으므로 태어난 송아지의 혈액 중에는 면역글로불린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스스로 면역글로불린을 생산하도록 유도해야하므로, 우선 초유를 포유시킴으로써 면역글로불린을 섭취시키는 것이 신생 송아지의 건강유지에 필수이다.

두 번째의 경우 ‘적절한 칼로리 공급’에 있다. 즉 어미의 젖의 양이 충분해야 하고 입블
이기 사료가 적절히 공급 되어야 한다. 송아지에게 요구되는 영양소는 모유와 보조사료

를 아우르며, 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유기 초기 송아지 발육의 80% 이상이 모유 섭취량이 결정된다. 어미소의 비유량은 산차, 분만계절, 포유일수, 영양상태 등에 따라 일일 0.4~4kg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산차에 따른 비유량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초산이 2산차 이상보다 약 30% 이상 적다. 3산차에서 가장 비유량이 높다. 계절에 따른 비유량 차이로는 봄 분만우가 가을 분만우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송아지의 강건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육용종인 한우는 짧은 비유지속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분만 후 1개월에 최고 비유량에 도달하여 3개월령에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미소의 비유량만으로는 송아지의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유초기부터 보조사료급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세 번째의 경우 안락성과 청결성에 있다. 송아지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체의 전파경로는 대부분 경구감염이므로, 구강을 통한 병원체의 이행을 막는 환경 위생관리가 중요하며 아울러 송아지의 면역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출생 직후 및 1개월령 이전의 송아지는 질병에 대한 방어기능이 없어 바닥에 분변이 많이 있거나, 먼지가 많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비위생적인 축사에서 사육될 경우 설사병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송아지 설사 발생이 적은 농장은 송아지 전용공간의 마련, 새로운 송아지 입식시 전용공간의 청소, 소독 등 환경위생관리 항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원천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사 발생이 많은 농장의 경우, 급여 후 남은 건초 및 사료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농장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으며, 송아지 전용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송아지가 어미소가 있는 공간에 머물게 된다. 때문에 계속 젖은 바닥에 앉아있고, 송아지가 이용할 깨끗하고 마른 바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설사가 있는 송아지가 다른 정상 송아지와 계속 접촉하므로 설사병의 고리를 끊어내기가 더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표3>과 같이 송아지의 주변환경을 점검하여 감염의 원인을 애초에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컨설팅 현장에서는 가장 먼저 설사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고 꾸준히 인지시키도록 지도하고 있다.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들인다면 누구든 지금보다 더 육성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표3> 송아지 주변 환경 상황 점검 및 개선 활동

| 수조 관리 개선 | |
|---|---|
|  <p>수조 관리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조관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 농도 측정 - ppm 농도 측정 - 위생관리상태 점검 |  <p>수조관리를 통한 농가 성적 개선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향상 / 도체중 향상 - 뇨결석 예방 - 수질검사(협회요청) |
| 바닥 관리 개선 | |
|  <p>바닥 관리상태 불량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모니아 가스 측정기(N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사 내 바닥 분변으로 인한 암모니아 가스의 농도 측정 - 측정된 농도에 따른 위험성과 개선방안 교육 |  <p>바닥관리를 통한 농가 성적 개선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에너지 감소 - 스트레스 최소화 - 증체율 향상 - 사료효율 향상 |
| 환기 관리 개선 | |
|  <p>환기 관리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관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측정 - 원활한 환기를 위한 공기 유입 및 배출구 확인 |  <p>환기관리를 통한 농가 성적 개선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최소화 - 증체율 향상 - 사료효율 향상 - 호흡기질병 발생을저하 |
| 조사료 관리 및 급여 개선 | |
|  <p>조사료 관리상태 불량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 보관상태 점검과 급여중인 조사료 내 이물질 함유 유무 점검 - 조사료 보관 및 급여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교육 |  <p>조사료관리를 통한 농가 성적 개선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기 증체율 개선 - 스트레스 최소화 - 증체율 향상 - 사료효율 향상 - 출하성적 개선 |

4

번식우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 '퓨리나 한우마을'

한우 암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 카길애그리퓨리나 박영하

많은 축산 전문가들은 2021년을 전후하여 한우 도축두수의 증가로 인한 한우 지육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조심히 예상하고 있다. 도축두수의 증가는 큰소와 송아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암소 도축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항상 그래왔듯이 암소 도축의 증가는 불황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경험이 그 불안을 증폭시키며 현재의 계절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우 산업에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번식우 사업의 불황을 이겨내는 전략

불황의 상황에서 비육 전문농장이 부딪힐 도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큰소 가격이 하락하면 밀소 구입가격도 같이 하락하기에, 지육가격이 생산비 수준 이하로 폭락하지 않는 이상 일정 수익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일관 사육농장도 그런 취지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번식 전문농장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주 수입원이 송아지 판매인 번식 전문농장



은 송아지 가격 하락을 보전할 방안이 없다. 이렇듯 큰 변화와 도전이 예고된 가운데 번식농가가 취해야할 전략은 매출 향상을 위한 생산성과 비용 대비 효율에 집중해야 한다. 한우 번식에 있어서 생산성의 개선은 곧 출하 두당 비용 절감으로 직결되고 모든 생산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비용을 줄이는 것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하거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장기 적으로 큰 문제를 낳게 된다. 무엇을 줄이고 어디에 더 투자할 지를 잘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우 번식우의 생산성, 고영양 사양에 달렸다

그동안 한우는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등급출현율과 도체중 부문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거세우의 경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011년 43%에서 2019년 59%로 16% 증가했으며, 도체중도 422kg에서 446kg으로 24kg 향상되었다.

그러나 암소의 경우는 그 성장세가 대단히 저조하다.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11년 14%에서 2019년 20%로 6% 성장에 그쳤으며, 1++등급 출현율의 경우 동기간에 2%만이 증가했다. 2019년 암소 평균 도체중은 359kg으로 거세우와 비교해 90kg 정도 작게 출하되었다. 암소는 거세우에 비해 2배나 긴 시간동안 사육하는 것 치고는 도체중의 차이가 심할 정도로 크다. 육질등급은 암소의 개량과 정액으로 결정되며 암소의 유전능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암소의 출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장기 비육으로 인한 성숙도 패널티가 그 원인이라고 하기엔 최근 암소 출하 트렌드로 볼 때 이를 뒷받침하기가 부족하다. 육질등급에서 개량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세우들을

퓨리나 한우마을이 약속 드리는 가치

✓ 우시장 1등 송아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 진짜 1년 1산을
경험해 보세요

✓ 한우 암소 육성우도
이제 사랑받아야 합니다.

✓ 한우 암소의 도체중 50kg
더 크게 출하하세요

낳은 어미소는 마치 개량의 효과를 못 본 듯 하다.

그 이유는 한우 번식우의 저영양 사양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과거부터 그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한우 번식우는 1년에 송아지 한 마리만 생산하는 정도로 취급 받아 왔다. “어미소에게 더 투자한

다고 송아지 2마리 낳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인식으로 항상 한우 번식우에게 급여하는 사료는 가장 저렴한 사료를 선택해 온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대가로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인지, 한우 번식우의 저영양 사양이 주는 손실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우 암소의 고영양 사양으로 전환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일까?

첫째, 유질과 유량을 향상시켜 포유 송아지의 성장율과 폐사율을 개선시켜줄 것이다. 가능한 많은 송아지를 살리고 초기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번식 농장 수익의 성장 지름길이다.

둘째, 고영양 사양은 포유기 때 우유 생산과 더불어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초과 생산하며, 초과된 에너지 자원을 통해 분만 후 어미소의 빠른 회복과 강한 발정, 높은 수태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는 번식우 1년 1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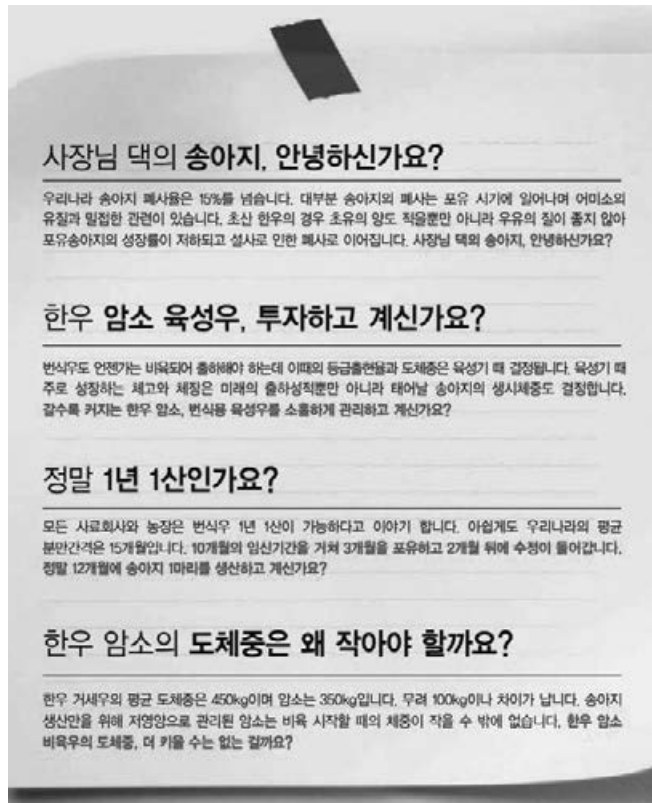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고영양 사양은 한우 암소의 육성기 골격 성장과 언젠가 출하될 미래의 암소 출하성적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태어날 송아지의 생시체중도 키워줄 수 있다.

한우 암소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때다

2019년 퓨리나사료가 선보인 송아지본 200+ 사료를 통해 한우 송아지의 체중이 눈에 띄게 많이 성장하였다. 과거 한우 암송아지 6개월령 체중은 150kg이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180kg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송아지가 커진 만큼, 그리고 갈수록 가속화되는 한우 개량 속도에 발맞추어 퓨리나사료는 새로운 신성장모델인 퓨리나 한우마을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퓨리나 한우마을은 사료급이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며, 반추위 발효안정, 유질향상, 송아지 설사감소, 번식 개선을 통해 한우 암소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우시장 1등 송아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진짜 1년 1산의 경험과 더불어 한우 암소의 도체중을 50kg 더 크게 출하할 수 있다. 다가올 불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한우 사업을 위해, 한우 암소의 고영양 사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한우 암소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호황에는 누구나 돈을 번다. 그러나 생산성이 높은 번식우 농장은 더 큰 매출과 수익을 낸다. 더 큰 매출과 수익은 규모화를 위한 자본금으로 활용되며, 불황은 최고의 타이밍이 될 것이다. 불황을 이겨내는 전략은 바로 우시장에서 송아지 판매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즉 농장의 생산성에 있다. 이제는 한우 암소의 고영양 사양을 통해 누구나 숨겨진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사장님 닉의 송아지,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송아지 폐사율은 15%를 넘습니다. 대부분 송아지의 폐사는 포유 시기에 일어나며 어미소의 유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초산 한우의 경우 초유의 양도 적을뿐만 아니라 우유의 질이 좋지 않아 포유송아지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설사로 인한 폐사로 이어집니다. 사장님 닉의 송아지, 안녕하십니까?

한우 암소 육성우, 투자하고 계신가요?

번식우도 언젠가는 비육되어 출하해야 하는데 이때의 등급출연율과 도체중은 육성이 핵심입니다. 육성이 빠르면 성장하는 세고와 체장은 미래의 출하성적뿐만 아니라 태어날 송아지의 생사체중도 결정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한우 암소, 번식용 육성우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정말 1년 1산인가요?

모든 사료회사와 농장은 번식우 1년 1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평균 분만간격은 15개월입니다. 10개월의 임신기간을 거쳐 3개월을 포유하고 2개월 뒤에 수정이 들어갑니다. 정말 12개월에 송아지 1마리를 생산하고 계신가요?

한우 암소의 도체중은 왜 작아야 할까요?

한우 거세우의 평균 도체중은 450kg이며 암소는 350kg입니다. 무려 100kg이나 차이가 납니다. 송아지 생산만을 위해 저영양으로 관리된 암소는 비육 시작할 때의 체중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우 암소 비육우의 도체중, 더 키울 수는 없는 걸까요?

정보 마당

- 한우사육 백문백답
- 12월 한우동향분석
- 사료 수급·이용실태 및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 소식·정보
 - 2022년 제2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 안내
 - 알아두면 편리한 축산농가 소독 요령
 - 2020년 제 4차 이사회 영상회의 개최
 -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시행중
 - 본회-GS리테일 업무 협약식 개최
 - 협회전용사료 '대한한우' 1월 사료가격



농가 보유 암소 중 우량 암소 선발방법농가에서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이 중 몇 마리를 도태하고 몇 마리를 번식우로 활용하는가를 살펴보면 도태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농가는 아마도 생존하는 모든 암송아지를 육성하여 번식우로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선발률은 100% (도태율 0%)로 암소에 대한 선발은 실시하지 않은 것이 된다.

유전적 개량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형질이 유전적으로 개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좋은 수소의 정액을 암소에 인공수정 한다 하더라도, 암소의 능력이 좋지 않으면 해당형질의 개량량을 극대화 할 수 없다. 이는 자손의 능력은 부와 모의 능력을 반반씩 유전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암소의 개량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개량방향에 맞추어 암소를 도입하거나 선발을 통해 해당축군(농가) 암소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가. 어떠한 형질을 개량할 것인가?

개량하고자 하는 형질(수태율, 번식간격, 12개월령 체중, 근내지방도 등과 같은 개체별

특성을 말함)은 경제적으로 중요하며 측정이 가능하고, 개체 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 목표 설정은 가능한 2~3개 형질 등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개량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 개량목표 설정

- ① 경제적으로 중요한 형질을 나열해 본다.
- ② 시장이나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나열한다.
- ③ 실현가능한 나의 미래 생산목표를 나열한다.
(예시) 56일 수태율 90%, 자연분만 95%, 분만간격 12개월 등
- ④ 축군의 현재 능력을 나열해 본다.
- ⑤ 각 형질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개량목표를 나열한다.

다. 적절한 암소선발 방법의 선택

① 교배 전 선발

교배 전 선발은 암소가 번식에 들어가기 전에 도태를 하여 능력이 낮은 암소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될 기회를 없앴으로써 축군을 개량해 나가는 것이다. 미경산우의 경우 개체의 능력(성질, 외모/체형)에 따른 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 발을 하려면 암송아지에 대한 능력검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교배 후 선발

주로 수태율과 같이 번식능력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되 암소가 출산한 송아지의 도축 성적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암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번식성적으로는 수태율, 분만 간격(공태일) 등 번식능력과 송아지 육성능력(송아지의 포유거부 여부, 육성률, 이유 시 체중)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체형, 성질(난폭, 겁이 많은 돌출행동) 등이 있다. 이러한 형질을 조사하여 선발(도태)에 활용하여야 우량 암소를 선발 할 수 있다.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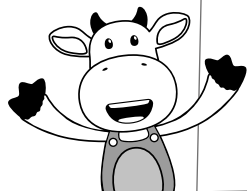
Q. 주간유도 분만 방법은?

A. 소의 분만은 주로 밤늦은 시간대에서 새벽, 아침 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지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 취약 시간대에 분만하게 되면 동사의 원인이 된다. 암소의 분만을 호르몬제로 유도하면 일반적으로 투여 후 6시간 내외에서 분만을 유도할 수 있으나 후산이 정체되므로 보다 안전한 낮 시간대에 분만을 유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① 낮 시간대 분만유도의 단기적 방법은 임신말기 1개월 이상 하루에 급여할 조사료, 농후사료를 아침·저녁으로 나누어 급여하지 않고, 저녁에 한번만 급여하며 아침에 남기면 모두 제거한다.

② 1년 이상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아침과 저녁 1일 2회 조사료, 농후사료를 모두 급여 하되 아침은 7시경, 저녁은 오후 8시 30분경 급여하거나, 아침은 7시경 조사료만 급여하고 저녁으로 오후 5시경 조사료 급여 후 농후사료는 1일 급여량을 모두 급여하면 된다.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Q. 경산암소 비육방법과 적정 비육기간은?

A. 경산암소의 비육은 48개월령, 450kg 이하의 그룹에서는 최소 8개월, 가능하다면 10개월 이상 비육기간이 되어야만 1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평균 연령이 5세가 넘는 450kg 이상의 우군은 장기 비육보다는 6~8개월 비육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암소는 오래 비육해도 근내지방 축적에 한계가 있었다. 연령별 발육과 도체특성은 나이가 적을수록 일당증체량은 높게 나타났으며 사료요구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므로 비육개시 시기는 5세 이전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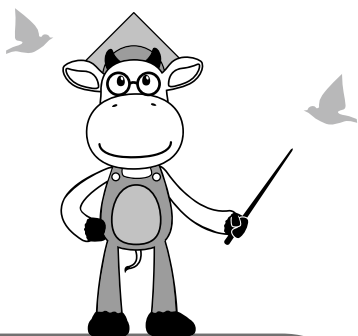
한편 초음파 측정을 통해 장기 비육을 할 개체와 속성 비육을 할 개체를 구분하면 좋은데, 비육 개시 4개월 후에 초음파를 측정했을 때, 근내지방도가 1인 개체는 더 비육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으므로 가급적 빠른 출하가 바람직하다. 근내지방도가 2인 경우는 1~2개월 추가 비육하고, 3 이상이라면 최소 2개월 이상 추가 비육하는 것이 유리하며, 등지방두께가 10mm 이하로 얇을 경우 비육기간을 연장하면 육질등급을 올릴 수 있다.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출처 :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한우사육
100문100답집
(2019. 12.,
국립축산과학원





한우 동향 분석

■ (사)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요약

■ (한우사육) 12월 한우 사육두수 전년동월 대비 증가, 전월·전분기 대비 감소

- 가임암소는 전년동월·전분기 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농장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규모화 진행 중

■ (등급판정) 11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대비 증가, 전년동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0%로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감소
- 1++ : 23.2%, 1+ : 26.2%, 1 : 25.5%

■ (도매 및 산지가격) 11월 한우 도매 및 큰암소·송아지 전년 대비 상승

-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 전월 대비 하락
- 한우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송아지·큰암소 상승, 전월 대비 큰소 가격 상승·송아지 가격 하락
- 큰숫소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 (배합사료 생산 및 정액판매) 전년동기 대비 1~11월 판매량 모두 증가

- 1~11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한우사육 두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
- 1~11월 정액판매량은 가임암소 증가와 높은 번식의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

■ (쇠고기 수입) 1~1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

- 냉동쇠고기 수입량은 크게 감소한 반면 냉장쇠고기 수입량은 큰 폭 증가
* 쇠고기 수입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과 단체급식 수요 감소 때문

■ (수급전망) 한우 사육 증가세 지속 및 도매가격 소폭 하락 전망

- 가임암소 및 정액판매량 증가로 송아지 생산 증가 예상,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 사육두수 증가로 도축두수 증가 예상되며, 도축량 증가로 도매가격 소폭 하락 전망

1. 한우 사육동향

2020년 12월 한우 사육두수 전년동월 대비 증가, 전월·전분기 대비 감소, 가임암소 전년동월·전분기 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한우 사육두수는 320만두로 전년동월(305만 5천두)보다 4.7%(14만 4천두) 증가, 전분기·전월 대비 각각 1.2%(3만 7천두), 0.01%(9천두) 감소
 - 전년동월 대비 사육두수 증가는 가임암소를 비롯한 1세 미만과 1~2세, 2세 이상 사육두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
- 가임암소는 154만 1천두로 전년동월 대비 3.9%(6만 6천두)·전분기 대비 0.5%(7천두) 각각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는 1세 미만과 1~2세, 2세 이상에서 전년동월 대비 모두 증가
 - 반면 전분기 대비 1세 미만과 2세 이상은 각각 2.6%, 1.8% 감소, 1~2세 미만은 1.4% 증가
 - 전월 대비 1세 미만과 1~2세는 각각 0.3%씩 증가, 2세 이상은 1.1% 감소
- 농장수는 88,879호로 전년동월 대비 0.8%(737호)·전분기 대비 0.02%(14호) 감소, 전월 대비 0.1%(51호) 증가해 농장 감소세가 지속
- 농장당 사육두수는 36.0두로 전년동월 대비 5.6%(1.9두) 증가, 전월 대비 0.4%(0.1두)·전분기 대비 1.1%(0.4두) 각각 감소

<표1> 한우 사육현황

(단위 : 호, 천마리, %, 마리)

| 구분 | 농장수 | 사육두수 | 가임암소두수 | 송아지두수 | 연령별 두수 | | | 농장당 사육두수 |
|------|---------|-------|--------|-------|--------|------|-------|----------|
| | | | | | 1세 미만 | 1~2세 | 2세 이상 | |
| 2015 | 101,670 | 2,769 | 1,330 | 706 | 777 | 784 | 1208 | 27.2 |
| 2016 | 97,498 | 2,810 | 1,346 | 723 | 792 | 788 | 1229 | 28.8 |
| 2017 | 94,107 | 2,871 | 1,372 | 784 | 834 | 804 | 1234 | 30.5 |
| 2018 | 92,238 | 2,962 | 1,427 | 899 | 861 | 825 | 1276 | 3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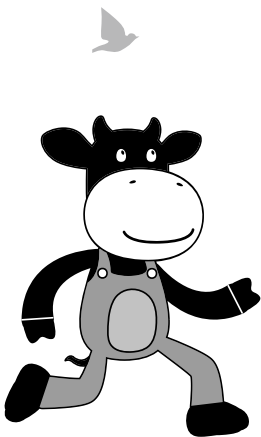
| 구분 | | 농장수 | 사육 두수 | 가임 암소 두수 | 송아지 두수 | 연령별 두수 | | | 농장당 사육 두수 |
|-------------|-----------|--------|----------|----------------|-----------|--------|------|-------|-----------------|
| | | | | | | 1세 미만 | 1~2세 | 2세 이상 | |
| 2019 | 3월 | 91,496 | 2,908 | 1,396 | 168 | 870 | 824 | 1,214 | 31.8 |
| | 6월 | 90,856 | 3,094 | 1,420 | 371 | 890 | 826 | 1,377 | 34.1 |
| | 9월 | 90,142 | 3,116 | 1,474 | 246 | 898 | 838 | 1,379 | 34.6 |
| | 12월(A) | 89,616 | 3,055 | 1,484 | 135 | 883 | 852 | 1,321 | 34.1 |
| 2020 | 3월 | 89,411 | 3,038 | 1,456 | 186 | 922 | 862 | 1,254 | 34.0 |
| | 6월 | 89,155 | 3,175 | 1,480 | 330 | 887 | 878 | 1,410 | 35.6 |
| | 9월(B) | 88,893 | 3,237 | 1,546 | 249 | 858 | 894 | 1,485 | 36.4 |
| | 11월(C) | 88,828 | 3,209 | 1,550 | 56 | 884 | 898 | 1,427 | 36.1 |
| | 12월(D) | 88,879 | 3,200 | 1,550 | 148 | 887 | 901 | 1,412 | 36.0 |
| 증 감 율 | 전년동월(D/A) | △0.8 | 4.7 | 4.4 | 9.7 | 0.5 | 5.7 | 6.9 | 5.6 |
| | 전분기(D/B) | △0.02 | △1.2 | 0.5 | - | △2.6 | 1.4 | △1.8 | △1.1 |
| | 전월(D/C) | 0.1 | △0.3 | 0.0 | - | 0.3 | 0.3 | △1.1 | △0.4 |

주 : 1. 매월1일 기준

2. 2020년 3분기까지는 '가축동향조사' 자료이며, 2020년 11·12월 자료는 '소이력제현황' 자료임

3. 송아지 생산두수의 경우 2020년 3분기까지 자료는 가축동향-한우과거 3개월간 변동상황'자료이며, 2020년 12월은 이력
제시스템-지역별 출생신고현황(10~12월 누계)'자료임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11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대비 증가, 전년동월 대비 감소

○ 11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55,435두로 전월(53,662두) 대비 3.3%(1,773두) 증가, 전년동월(58,883두) 대비 5.9%(3,448두) 감소

- 성별비율은 암소 42.6%, 수소 1.1%, 거세우 56.3%

* 전월대비 : 암소 2.6%p↑, 수소 0.1%p↑, 거세우 2.6%p↓, 거세울 0.3%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 구분 | 계 | 암 | 수 | 거세 | 수소거세울 |
|--------------|---------|---------|-------|---------|-------|
| 2019년 누계 | 688,789 | 309,007 | 9,931 | 369,851 | 97.4 |
| ('19.1.~11월) | (100.0) | (44.9) | (1.4) | (53.7) | |
| 2020년 누계 | 695,137 | 317,717 | 9,140 | 368,280 | 97.6 |
| ('20.1.~11월) | (100.0) | (45.7) | (1.3) | (53.0) | |
| 전년동월 | 58,883 | 24,685 | 624 | 33,574 | 98.2 |
| ('19.11월) | (100.0) | (41.9) | (1.1) | (57.0) | |
| 전월(10월) | 53,662 | 21,489 | 549 | 31,624 | 98.3 |
| | (100.0) | (40.0) | (1.0) | (58.9) | |
| 당월(11월) | 55,435 | 23,596 | 626 | 31,213 | 98.0 |
| | (100.0) | (42.6) | (1.1) | (56.3) |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11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1++등급 23.2%, 1+등급 26.2%, 1등급 25.5%

○ 11월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0%, 1++등급 23.2%, 1+등급 26.2%, 1등급 25.5%

- 전월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7.2%) 대비 2.2%p↓, 1++ 등급은 1.5%p↓, 1+등급은 1.1%p↓, 1등급은 0.3%p↑

- 전년동월(75.7%) 대비 1등급 전체 출현율은 0.7%p↓, 1++등급은 4.6%p↑, 1+등급은

2.4%p↓, 1등급은 3.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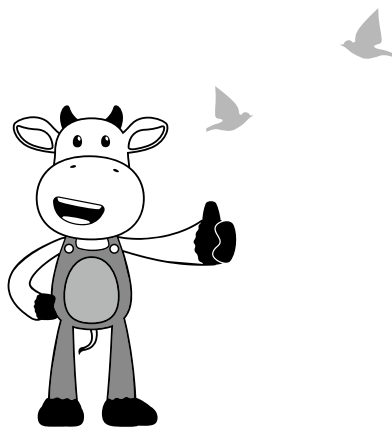
- 전년누계(75.7%) 대비 1등급 전체 출현율은 0.1%p↑, 1++등급은 7.5%p↑, 1+등급은 3.4%p↓, 1등급은 4.0%p↓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 구분 | | 판정두수 | 육질등급 | | | | | | 육량등급 | | | 등외 |
|-------------|----------|---------|------|------|------|------|------|-----|------|------|------|------|
| | | | 1++ | 1+ | 1 | 소계 | 2 | 3 | A | B | C | |
| 2016 | | 737,476 | 9.6 | 30.4 | 29.4 | 69.3 | 22.8 | 7.6 | 22.9 | 47.2 | 29.6 | 0.2 |
| 2017 | | 742,536 | 10.1 | 33.3 | 28.7 | 72.1 | 20.3 | 7.4 | 21.2 | 47.1 | 31.4 | 0.3 |
| 2018 | | 736,354 | 12.2 | 30.4 | 30.4 | 72.9 | 19.4 | 7.3 | 20.5 | 47.6 | 31.7 | 0.3 |
| 2019 | | 765,297 | 15.7 | 28.3 | 29.9 | 74.0 | 18.6 | 7.1 | 20.7 | 48.2 | 30.8 | 0.3 |
| 2019 | 11월(A) | 58,883 | 18.6 | 28.6 | 28.5 | 75.7 | 17.3 | 6.6 | 19.1 | 48.2 | 32.3 | 0.4 |
| | 1~11월(B) | 688,789 | 14.9 | 28.8 | 30.2 | 73.9 | 18.7 | 7.1 | 20.5 | 48.0 | 31.2 | 0.3 |
| 2020 | 10월(C) | 53,662 | 24.7 | 27.3 | 25.2 | 77.2 | 16.3 | 6.3 | 24.6 | 51.3 | 23.8 | 0.3 |
| | 11월(D) | 55,435 | 23.2 | 26.2 | 25.5 | 75.0 | 17.6 | 7.2 | 22.8 | 51.7 | 25.2 | 0.3 |
| | 1~11월(E) | 695,137 | 22.4 | 25.4 | 26.2 | 74.0 | 18.3 | 7.4 | 25.3 | 50.5 | 24.0 | 00.3 |
| 전월대비(D-C) | | 1,773 | △1.5 | △1.1 | 0.3 | △2.2 | 1.3 | 0.9 | △1.8 | 0.4 | 1.4 | 0.0 |
| 전년동월대비(D-A) | | △3,448 | 4.6 | △2.4 | △3.0 | △0.7 | 0.3 | 0.6 | 3.7 | 3.5 | △7.1 | △0.1 |
| 전년누계대비(E-B) | | 6,348 | 7.5 | △3.4 | △4.0 | 0.1 | △0.4 | 0.3 | 4.8 | 2.5 | △7.2 | 0.0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11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상승, 전월 대비 하락

- 11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은 코로나19에 의한 가정내 소비증가로 전년동월 (18,060원/kg) 대비 10.0%(1,802원/kg) 상승, 전월(20,687원/kg) 대비 4.0% (825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동월(18,277원/kg) 대비 9.4%(1,715원/kg) 상승, 전월(20,729원/kg) 대비 3.6%(737원/kg) 하락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원/kg, %)

| 구분 | | 1++ | 1+ | 1 | 2 | 3 | 등외 | 평균 |
|------|-----------|--------|--------|--------|--------|--------|-------|--------|
| 2017 | | 20,325 | 18,189 | 16,951 | 13,969 | 11,048 | 5,715 | 16,719 |
| 2018 | | 20,958 | 19,416 | 17,967 | 14,965 | 12,025 | 6,194 | 17,772 |
| 2019 | 3월 | 21,314 | 19,650 | 17,338 | 14,354 | 11,856 | 6,269 | 17,513 |
| | 6월 | 21,955 | 20,230 | 17,742 | 14,646 | 11,060 | 4,857 | 17,936 |
| | 9월 | 21,779 | 20,370 | 18,834 | 15,322 | 10,915 | 5,400 | 18,610 |
| | 11월(A) | 20,783 | 19,344 | 18,060 | 15,669 | 12,990 | 4,452 | 18,277 |
| | 평균 | 21,290 | 19,788 | 17,922 | 14,778 | 11,649 | 5,281 | 17,965 |
| 2020 | 3월 | 22,036 | 20,629 | 19,022 | 15,210 | 11,829 | 4,757 | 18,662 |
| | 6월 | 24,101 | 21,984 | 19,948 | 16,061 | 12,440 | 5,571 | 19,832 |
| | 9월 | 23,307 | 21,430 | 20,561 | 16,245 | 12,672 | 5,361 | 20,216 |
| | 10월(B) | 23,331 | 21,538 | 20,687 | 17,212 | 13,454 | 5,588 | 20,729 |
| | 11월(C) | 23,103 | 20,998 | 19,862 | 16,673 | 13,547 | 5,534 | 19,992 |
| 증감율 | 전년동월(C/A) | 11.2 | 8.6 | 10.0 | 6.4 | 4.3 | 24.3 | 9.4 |
| | 전월(C/B) | △1.0 | △2.5 | △4.0 | △3.1 | 0.7 | △1.0 | △3.6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11월 한우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송아지·큰암소 상승, 전월대비 큰소 가격 상승·송아지 가격 하락

- 11월 큰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6,430천원으로 전년동월(5,863천원) 대

비 9.7% (567천원), 전월(6,291천원) 대비 2.2%(139천원) 각각 상승

- 반면, 수소의 경우 5,429천원으로 전년동월(5,559천원) 대비 2.3%(130천원) 하락,
전월(5,232천원) 대비 3.8%(197천원) 상승

○ 11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3,552천원으로 전년동월
(3,272천원) 대비 8.6%(280천원) 상승, 전월(3,553천원) 대비 0.03%(1천원) 하락

- 수송아지의 경우 4,286천원으로 전년동월(3,978천원) 대비 7.7%(308천원) 상승한
반면 전월 대비 1.7%(74천원) 하락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 구분 | | 큰소(600kg) | | 송아지(4~5월령) | | 송아지(6~7월령)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 2016 | | 5,816 | 5,650 | 2,465 | 3,485 | 2,900 | 3,550 |
| 2017 | | 5,406 | 4,733 | 2,612 | 3,444 | 2,919 | 3,572 |
| 2018 | | 5,599 | 4,911 | 2,725 | 3,272 | 3,118 | 3,841 |
| 2019 | 3월 | 5,619 | 5,495 | 3,290 | 3,307 | 3,149 | 3,684 |
| | 6월 | 5,558 | 5,685 | 2,771 | 3,562 | 3,362 | 4,219 |
| | 9월 | 5,589 | 5,556 | 2,941 | 3,570 | 3,170 | 4,031 |
| | 11월(A) | 5,863 | 5,559 | 2,611 | 3,420 | 3,272 | 3,978 |
| | 평균 | 5,646 | 5,476 | 2,790 | 3,394 | 3,212 | 3,930 |
| 2020 | 3월 | 5,943 | 4,983 | - | 3,132 | 3,299 | 3,960 |
| | 6월 | 6,255 | 5,504 | 3,189 | 4,393 | 3,610 | 4,505 |
| | 9월 | 6,101 | 5,420 | 2,571 | 3,733 | 3,481 | 4,510 |
| | 10월(B) | 6,291 | 5,232 | 2,629 | 3,736 | 3,553 | 4,360 |
| | 11월(C) | 6,430 | 5,429 | 3,180 | 3,348 | 3,552 | 4,286 |
| 증감율 | 전년동월(C/A) | 9.7 | △2.3 | 21.8 | △2.1 | 8.6 | 7.7 |
| | 전월(C/B) | 2.2 | 3.8 | 21.0 | △10.4 | 0.0 | △1.7 |

자료 : 농협축산정보센터 '산지가격동향'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11월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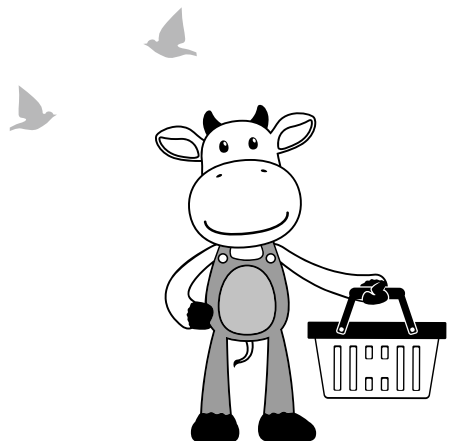
- 2020년 1~11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572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209천톤)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한우 사육두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
- 1~11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2,166천str로 전년 동기 대비 10.8%(212천str) 증가
 - 이는 가임암소가 증가하고 농가의 번식의향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으로 분석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 구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배합 사료 | 2017 | 388 | 363 | 398 | 355 | 389 | 373 | 349 | 389 | 416 | 358 | 395 | 394 | 4,566 |
| | 2018 | 407 | 358 | 374 | 368 | 389 | 364 | 348 | 401 | 366 | 428 | 407 | 404 | 4,616 |
| | 2019 | 439 | 341 | 383 | 403 | 403 | 365 | 404 | 397 | 392 | 430 | 406 | 428 | 4,791 |
| | 2020 | 426 | 384 | 412 | 414 | 404 | 402 | 427 | 390 | 457 | 428 | 430 | | 4,572 |
| 정액 | 2017 | 141 | 47 | 176 | 158 | 160 | 211 | 229 | 170 | 214 | 180 | 148 | 122 | 1,956 |
| | 2018 | 134 | 119 | 166 | 55 | 237 | 233 | 223 | 195 | 189 | 179 | 151 | 174 | 2,054 |
| | 2019 | 138 | 48 | 207 | 196 | 195 | 196 | 231 | 183 | 183 | 185 | 192 | 141 | 2,095 |
| | 2020 | 157 | 168 | 155 | 213 | 207 | 231 | 207 | 211 | 227 | 205 | 186 | | 2,166 |

주 : 2019년 2월 구제역 발생으로 정액판매가 중단(2.1~2.21) 됐으며,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와 불일치
 자료 : 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5. 쇠고기 수입현황

2020년 1~1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3.6%(13,980톤) 감소

- 1~11월 쇠고기 수입량은 38만톤으로 전년 동기간 39만 4천톤에 비해 3.6% 감소
 - 전년 동기간 대비 냉장쇠고기는 12.1%(9,581톤) 증가했으나 냉동쇠고기 수입물량이 큰 폭(△7.5%, 23,561톤)으로 감소해 전체적으로 수입물량(13,980톤) 감소
- 1~11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등심과 양지, 갈비 부위가 각각 13.9%(6,539톤), 9.2%(4,923톤), 1.9%(2,867톤) 감소한 반면 앞다리와 기타 부위는 각각 0.3%(155톤), 0.2%(194톤) 증가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수입쇠고기의 주요 소비처인 외식과 단체급식에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
- 1~11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호주와 미국에서 각각 7.3%(11,038톤), 4.0%(8,805톤) 감소한 반면, 뉴질랜드와 멕시코 등에서 각각 34.6% (4,082톤), 25.8%(1,463톤) 크게 증가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 구분 | 물량 | | | 부위별 | | | | | 국별 | | |
|------|---------|---------|---------|---------|---------|--------|--------|---------|---------|---------|--------|
| | 합계 | 냉동 | 냉장 | 갈비 | 양지 | 앞다리 | 등심 | 기타 | 미국 | 호주 | 기타 |
| 2010 | 245,086 | 203,006 | 42,080 | 99,264 | 23,446 | 25,464 | 36,353 | 60,559 | 90,569 | 121,790 | 32,727 |
| 2015 | 297,265 | 245,952 | 51,313 | 115,460 | 38,582 | 31,404 | 42,826 | 68,993 | 112,431 | 164,063 | 20,771 |
| 2016 | 361,531 | 301,219 | 60,312 | 133,197 | 35,049 | 45,295 | 50,001 | 97,989 | 153,181 | 177,530 | 30,820 |
| 2017 | 344,271 | 265,665 | 78,606 | 142,659 | 37,517 | 42,648 | 39,031 | 82,416 | 168,502 | 149,935 | 25,834 |
| 2018 | 415,685 | 326,531 | 89,154 | 151,933 | 53,737 | 54,270 | 55,595 | 100,150 | 219,769 | 167,454 | 28,462 |
| 2019 | 426,626 | 339,240 | 87,386 | 164,792 | 57,444 | 53,881 | 49,849 | 100,660 | 237,624 | 163,158 | 25,844 |
| 2019 | 1~10월 | 362,237 | 290,155 | 72,082 | 138,310 | 49,549 | 45,004 | 84,998 | 202,470 | 137,893 | 21,874 |
| | 11월 | 31,326 | 24,441 | 6,885 | 12,519 | 4,108 | 4,508 | 7,502 | 16,971 | 12,611 | 1,744 |
| | 누계(A) | 393,563 | 314,596 | 78,967 | 150,829 | 53,657 | 49,512 | 92,500 | 219,441 | 150,504 | 23,618 |

| 구분 | | 물량 | | | 부위별 | | | | | 국별 | | |
|------|-----------|---------|---------|--------|---------|--------|--------|--------|--------|---------|---------|--------|
| | | 합계 | 냉동 | 냉장 | 갈비 | 양지 | 앞다리 | 등심 | 기타 | 미국 | 호주 | 기타 |
| 2020 | 1~10월 | 347,557 | 266,939 | 80,618 | 136,325 | 44,012 | 45,532 | 36,954 | 84,734 | 193,765 | 126,439 | 27,353 |
| | 11월 | 32,026 | 24,096 | 7,930 | 11,637 | 4,722 | 4,135 | 3,572 | 7,960 | 16,871 | 13,027 | 2,128 |
| | 누계(B) | 379,583 | 291,035 | 88,548 | 147,962 | 48,734 | 49,667 | 40,526 | 92,694 | 210,636 | 139,466 | 29,481 |
| 증감율 | 전년동기(B/A) | △3.6 | △7.5 | 12.1 | △1.9 | △9.2 | 0.3 | △13.9 | 0.2 | △4.0 | △7.3 | 24.8 |

주 : 누계 A와 B는 당해년 11월까지의 수입물량 합계를 의미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축산물검사실적)

6. 수급 전망¹

당분간 한우 사육 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 가임암소와 정액 판매량 증가로 송아지 생산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우 사육 두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한우 사육두수 : 2020년 12월 두수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320만 6천두, 2021년 3월 3,149천두(3.7%↑), 6월 3,319천두(2.9%↑), 9월 3,332천두 (2.9%↑), 12월 3,281천두(2.3%↑) 전망
 - 가임암소 : 2020년 12월 두수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154만 9천두, 2021년 3월 1,513천두(3.5%↑), 6월 1,538천두(3.4%↑), 9월 1,586천두 (2.8%↑), 12월 1,588천두 (2.5%↑) 전망
 - 1세 미만 : 2020년 12월 두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94만 1천두, 2021년 3월 932천두(1.1%↑), 6월 938천두(0.0%↑), 9월 948천두 (4.0%↑), 12월 952천두(1.1%↑) 전망

1 KREI 축산관측 전망치 인용

한우 도축 증가가 예상되며, 도매가격은 소폭 하락 전망

- 당분간 한우 도축은 사육두수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20년 도축 두수는 77만 7천두로 예상되며, 10~12월 19만 1천두, 2021년 1월~ 3월 19만 5천두, 4~6월 19만 4천두, 7~9월 23만 2천두, 10~12월 22만 2천두 도축 전망
- 도축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도매가격은 소폭 상승하나 내년엔 하락 전망
 - 2020년 10~12월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3~9% 상승한 19,000원~20,000원으로 예상되며, 2021년 1~3월 18,000~19,000원, 4~6월 17,000원~18,000원, 7~9월 17,500~18,500원, 10~12월 17,000~18,000원 전망

2021년 설성수기 수급 전망

■ 설 성수기 한우 도축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 수요 증가 전망

- 2021년 설 성수기(설 전 4주간, 1.13~2.10) 도축 마릿수 전년(10만 1천두) 대비 4.0~5.9% 증가한 10만 5천~7천 마리
 - ☞ 26개월령 이상 개체수(2020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수(천마리) : (암소) 42, (거세우) 13

○ 설 성수기 수요 증가 전망

- 설 성수기 선물수요 및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가정 소비 유지 등 수요 증가 예상

■ 설 성수기 한우고기 도매가격 전년과 비슷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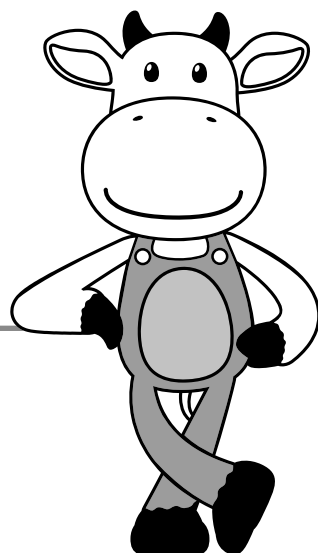
- 2021년 설 성수기 한우고기 전체 평균 도매가격은 2020년(19,333원/kg)과 비슷(△1.7~3.5%) 한 19,000원~20,000/kg 형성 전망

<표> 2021년 설 성수기 한우 도축 및 도매가격 전망 (단위 : 천마리, 원/kg)

| 구분 | 2021년(A) | 2020년(B) | 증감율(A/B) |
|------|---------------|----------|----------|
| 도축두수 | 105~107 | 101 | 4.0~5.9 |
| 도매가격 | 19,000~20,000 | 19,333 | △1.7~3.5 |

사료 수급·이용실태 및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 (사)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본 자료는 농업·농어특별위원회(축산 소분과) 의뢰로 추진된
“사료 수급·이용실태 및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12.23.)에 발표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01 들어가며

“농업과 축산,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으로 전환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
축순환 연계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 자급 생산·이용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조
사료 생산·이용이 가능한 농경지가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축산-경종농
가간 협력이 부족할뿐더러, 국내산 조사료 중 볏짚 비중도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과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축산물 생
산비를 줄이고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농경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가축분뇨를 사료로 환원하여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양분을 경종농가가 적극 활용하고, 축산농가는 경종농
가가 생산한 국내산 조사료나 곡물사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료·조사료의 국내 생산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내산 사료·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02 국내산 조사료 수급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은 2000년 12만 5천ha에서 2019년 28만 3천ha로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사료 재배면적 비중 또한 6.6%에서 17.9%로 2.7배 늘어났다.

'19년 기준 한육우 사육두수는 경북(21.7%), 전남(16.6%), 충남(12.4%), 전북(12.2%)순인 반면,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전남 42.0%, 전북 16.4%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대가축 사육두수 및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비교해 보면, 대가축 비중보다 사료작물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 전북, 제주 등 3개였지만, 경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등은 그 반대로 나타나 지역간 편차가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조사료 총소요량은 2000년 339만 2천톤에서 2019년 605만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국내산은 487만 2천톤, 수입산은 117만 8천톤으로 자급률은 80.5%였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료 건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므로, 일본·미국 등에서 적용중인 TDN(가소화영양총량) 기준 자급률로 환산할 경우 45~5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사료 수급 및 이용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농가들은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분이 과다하거나, 부패 및 이물질이 들어간 조사료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둘째, 조사료 생산 지역이 편중돼 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 지형 및 기후 여건상 재배지가 호남에 집중되는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조사료 공급 부족(수요-공급간 불일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타 지역으로부터 국산 조사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수입산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셋째, 국내산 조사료 연중 공급능력이 부족하다. 국내산 조사료는 사일리지 장기 보관 시 발효 불량, 설치류나 조류에 의한 감모 등의 이유 때문에 동계·하계 수확 시기에 집중 거래되고 있는데, 축협 등 조사료유통센터는 대형 보관시설 부족, 보관비용, 감모, 직접비 등 부담으로 1개월 내에 판매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대규모 곤포 사일리지(약 500kg) 위주로 유통됨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이용시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넷째,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가 부족하다. 국내산 조사료는 아직까지 벧짚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2019년 기준 44.3%), 그 외에 재배·공급되는 조사료도 IRG와 호밀 등 일부 작물에 편중되어 있어(2019년 기준 59.6%), 축산농가들의 선택폭이 좁은 편이다.

다섯째, 축산농가들의 수입 조사료 선호도가 높다. 특히 우유 생산량과 품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젖소 농가는 물론 TMR 제조업체들도 국내산보다 수입 조사료를 선호하고 있다. 수입 조사료는 국내산 조사료에 비교하여 연중 균일한 품질·물량으로 공급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초종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17년 실태조사 결과, 주요 TMR 제조업체들의 국내산 조사료 이용 비율은 한우는 25~70%, 젖소는 5~47% 수준이었다.

03 국내·외 조사료 작물 재배·이용 확대 사례 및 시사점

1) 국내 사례

국내에서는 한우 및 젖소(육우) 중심으로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직접 재배하여 급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별 농가 혹은 조사료경영체가 자가·임차 농지를 활용, 조사료 작물을 직접 재배·수확한 뒤, 주로 자가 가축에 급여하고 남은 물량을 타 농가에 공급하는 사례가 다수이다.

아울러 유기축산 방식을 택한 소규모 양돈 농가가 자가 농지에서 생산된 작물과 인근에서 조달한 농산 부산물 활용하여 자가 사료를 제조·급여하고, 돈사에서 나온 퇴비를 자가 농지에 환원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사례(실증연구)가 일부 있었다.

생산자단체(지역축협, 품목축협)들도 TMR·TMF 가공·공급, 조사료유통센터 운영, 대규모 조사료 재배단지를 구축·운영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 또한 신품종 개발·보급(코원어리 등),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재배·활용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수입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배합사료 사용량을 줄이고, 곡물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를 살포·활용하여 조사료를 재배함으로써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 의의라 할 수 있다.

2) 해외 사례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지형 여건을 지닌 일본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25년까지 사료자급률을 4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조사료 100%, 농후사료 20%, TDN 기준), 사료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사료용 쌀(양돈용, 양계용) 및 총체벼 발효 조사료용 벼(비육우용, 젖소용) 생산·급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식용쌀 과잉 문제 대응, 국가 전체 식료자급률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경종농가는 파종·관리, 축산농가는 수확·조제·급여”로 명확한 역할 분담이 돼 있고 경종농가, 축산농가, 지자체(농협)간 “중간협의체”에서 정보교류 및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참여주체간 이해충돌과 갈등 예방, 경종-축산농가간 거래 조건을 적극 조율해 나가고 있어, 우리나라에 당장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려워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강력한 질산염 지침을 수립·시행중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가축분뇨 전량을 자가

경작지에 환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육두수를 허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가 농지 내 사료(조사료) 자급, 가축분뇨 농지 활용”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는 조사료용 목초지를 보유해야 하며, 돼지의 경우 자가 농지에서 재배한 보리를 분쇄·급여하는 방식으로 축산업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당장 도입·적용하기 어렵지만,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혼목축산(Silvopastrol System)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혼목축산은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유럽 내 전통적인 영농·축산 방식(지중해 연안, 북서부 유럽 지역 등)으로, 상층부에는 나무를 심고 하층부에는 초지 조성 혹은 경작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축산물 생산은 물론, 연료·목재·곡물을 확보하고, 승마·트래킹·환경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외소득까지 창출할 수 있다. 아울러 산불위험 경감, 토양 및 식생 보전, 역사 및 문화가치 제고, 휴양처 제공, 경관 증진, 생물다양성 제고 등 공익적 기능 증진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04 사료작물 생산 및 이용 확대 방안

1) 사료작물 재배 확대 방안

○ 경종농가 사료작물 생산기반 강화

- 양질 조사료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답리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계 논에 사료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직불금 예산 확대

- '20년 논 활용(논이모작) 직불금: ha 당 50만원(예산 462억원 '17년 이후 고정)
- '20년 경관보전직불금: 준경관작물(IRG, 호밀 등) ha 당 100만원(예산 20억원)
-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조사료 재배시 ha 당 430만원(예산 344억원)
→ '21년 농업예산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예산 미반영(전액 삭감)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작목 선정, 전문생산단지 조성, 지역 내 가축분뇨 사용과 연계

- 사료용 총체며, 옥수수 등 대체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곡물자급률 제고

○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기반 강화

- 축산농가 조사료 자가 생산 유도, 소규모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유도
 - ☞ 겨울철 휴경농지 이용 조사료 생산시 가축분뇨 처리, 조사료 자급 가능
 - ☞ 전업 축산농가: 인근 농지 임대, 농지은행 활용, 휴경지·유휴지 활용 유도
 - ☞ 사일리지 제조비,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강화

○ 경축순환 활성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지역자원순환형 경축순환 농업지구 지정, 규모화와 함께 시범사업 실시 필요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개선 필요
 - ☞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소 사육두수가 조사료 생산량보다 많은 도(경북, 강원 등)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확대(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원 조건 개선)
- ⇒ 조사료 생산량이 많은 지자체(전북, 전남 등)에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 방안 강구
 - ☞ 민간 차원(예: 한우협회 등)의 계약생산·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 필요
- 지자체별 조사료 생산목표 부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2) 사료작물 이용 확대 방안

○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연계 방안

- 경축순환 연계 생산물(농산물, 축산물) 우수성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경축순환 연계 국산 조사료 인식 개선 및 차별화

○ 조사료 유통기반 확충

- 조사료유통센터 정책 개선
 - ☞ 축종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사료유통센터 지원 정책 등을 융통성 있게 개선·적용

☞ 조사료유통센터 운영자금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끔 확대 필요

- 소규모 농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료 소포장 활성화(15~20kg 단위)

○ 체계적인 품질 관리 방안

- ‘(가칭)조사료 플랫폼’ 구축·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동계·하계 조사료 이용농가(축산농가)들의 5점척도 평가 및 사용후기 등을
게시·공유

☞ 조사료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생산·유통주체들을 참여시켜 실증연구·검증
필요

- 조사료 수분·무게 등과 관련한 표준 조건표 작성, 보급·활용방안 연구

☞ 국산 조사료 유통시 관행적으로 600~700kg 단위 곤포 롤 단위로 가격 산
정·거래

☞ 수분함량이 낮은 헤일리지, 건초로 가공시 감도가 불가피하나 판매가격에는
미반영

☞ 건초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건물량과 수분량, 중량을 감안한
표준화된 조건표를 작성,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05 정책 제언

1) 법령 개정

○ 농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동계 이모작 농지임대 자경 인정

- '15년 농지법 개정(제28조 8호)으로, 사료작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에 자
경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은 미
인정

- 이 때문에 단기임대 허용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상실될 우려가

- 있어, 조사료 재배를 위한 이모작시 농지를 임대해주는 것을 농업인들이 기피
- 따라서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조사료 생산시 단기임대 농지에 대해 자경인정이 될 수 있도록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동계 조사료 재배를 위해 농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법 개정: 초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활성화

- 농식품부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을 추진
- 동 사업에 참여하는 상당수 축산농가들은 초지를 활용해 방목과 함께 조사료를 생산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목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어, 초지 방목을 통한 가축사육을 하는 현실 여건과 맞지 않음
- 따라서 초지를 활용해 조사료 생산과 방목을 함께 하는 경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조치를 예외로 하게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조항 개정이 필요

2) 제도 개선

○ 사료(조사료) 자급률을 건물 기준에서 TDN 기준으로 변경(일정기간 동안 병기)

- 국내 조사료 관련 자료 및 통계는 모두 건물 기준으로 작성
- 반면 일본·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TDN 기준으로 조사료 자료를 발표
- 중장기적으로 TDN 기준으로 조사료 자급률 산정기준을 변경하되, 정부 통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건물기준과 TDN 기준을 병기토록 해야 함
- TDN 기준으로 자급률을 산정할 경우 '20년 기준 82% 내외인 조사료 자급률이 45~50%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전문가 추산 결과)
- 사료 업무 담당 공무원(중앙, 지자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면책 등 조치 필요

○ 조사료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지역간 조사료 소요량, 동·하계 사료작물 생산량, 지역간 조사료 이동물량, 사료 용 벧짚 이용량 등 조사료 관련 기초통계가 미비한 실정
- 권역별 조사료 통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해당 권역 연구자(대학),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이 공동으로 견본포 등을 조성·운영, 통계 예측시스템 정확성 향상
- 이를 토대로 기초적인 조사료 수급, 재배면적 등 통계 도출 ⇒ 품목별 국내외 가격자료, 국내외 조사료 생산 및 유통동향, 장단기 조사료 수급·관측 전망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정확도 제고

○ 생산실명제 및 품질등급제 강화

- 조사료 생산자와 이용자간 신뢰 도모, 품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목표치(수분함량, 조단백질, 상대적사료가치, 조회분 등)를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 사료작물 정부보조금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 동계 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경지에 정부보조를 늘려 조사료 재배 확대
- 유희농지, 휴경지, 조사료포 임대 등 축산분뇨 살포 부지 확보하여,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는 축산농가나 경종-축산 연계 조사료 재배단지 등에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부서간·정부부처간 협조체제 운영

- 농식품부 내에서는 물론, 타 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축산환경, 식품안전관리 등과 연계된 사항)와 보다 긴밀한 의사소통과 업무 협조체제 구축·운영

2022년 제2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 안내

1. 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한우고기의 우수성 홍보

2. 배경

- 쇠고기 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따른 수입쇠고기와 가격 및 품질 경쟁시대 도래
- 고품질 브랜드 한우고기의 소비확대 방안 요망

3. 기대효과

-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수 암소집단 발굴 및 생산기반 조성
- 개량에 의한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사육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 혈통이 확립된 거세한우의 발육 및 도체성적 수집에 의한 개량 자료 활용

4. 개최 개요

- 대회명 : 제2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 신청기간 : 2021. 1. 8(금) ~ 2. 26(금)
- 신청자격
 - 참가신청자 :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전국한우협회 회원
 - 참가신청우

- 등록구분 : 혈통등록우
- 신청두수 : 3두 신청(1두 출품)
- 출생년월일 : 2020. 4. 1 ~ 6. 30
- 친자분석결과 일치 개체(참가신청서 접수시 친자확인 분석정보 제출)

- **참가회비 및 입금기한** : 50만원, 2021년 2월 26일(금)
 - 입금계좌 : (농협) 351-1158-0192-53, 임관빈(대회추진협의회장)
 - ※ 대회규정 제7조에 따라 참가회비를 신청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참가가능

- **대회 출품농가 친자확인 실시**
 - 25회 대회 신청농가는 참가신청서 접수 시 친자확인 분석결과 및 DNA정보를 신청하고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친자부정 또는 친자확인검사 미실시 개체는 참가신청접수 불가
 - 분석기관에 모근발송시「제2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신청서류 사본」을 반드시 동봉

- **제24, 25회 대회 출품농가 추진위원회 및 참여총회 개최**
 - 일시 : 2021년 5월중(예정)
 - 장소 : 장소확정 후 통보

- **출하 · 도축 · 경매행사**
 - 일시 : 2022년 10월경
 - 장소 :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예정)

- **전시 및 시상식**
 - 전시 및 시상식 : 2022년 10월경(예정)
 - 장소 : 미정(축산관련 전시회와 연계)

● 출품자격

- 출품자 자격 :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전국한우협회 회원
- 출품우 자격

| 구분 | 요건 |
|--------------|--|
| 등록구분 | 혈통등록우 |
| 거세여부 | 거세실시(신청시 거세일 기입요망) |
| 생년월일 | 2020. 4. 1 ~ 6. 30 (<기준> 4~5월 생 → <변경> 4~6월 생 : 1개월 확대) |
| 출하예정시기 | 2022년 10월경(생후 27~30개월령) |
| 공판장도착체중 | 700kg이상 |
| 출 품 부 문 | 농가, 브랜드 |
| 출품우 입식, 출품두수 | 3두 입식(1두 출품) |
| 출 품 회 비 | 50만원 |
| 출품우 생산지 | 자가생산한 송아지 (단체 : 자체 생육사업장에서 생산된 개체) |
| 친 자 확 인 | 출품신청이 기준 “친자일치” 확인개체 |

● 친자확인 모근채취 방법

- 대상우 : 출품축 송아지 + 어미소의 모근을 1조 단위로 채취
- 기간 : 2021년 2월 26일 (금)까지 친자분석 완료 후 결과제출
- 모근채취 요령
 - 1) 꼬리털 (20 가닥 이상) 을 역방향으로 당겨 정확하게 모근을 채취 함
 - 2) 어미소와 송아지 모근을 각각 분리하여 봉투에 밀봉 하여 냉동보관
 - 3) 모근채취 요령에 따라 모근을 채취한 후 봉투 (편지봉투) 에 귀표번호를 정확하게 기입 하여 봉합
 - 4) 채취한 샘플과 대회참가 신청서류 사본을 반드시 동봉하여 지정된 권역별 친자 확인 검사기관에 송부 (신청서류는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 권역별 친자확인 검사기관

| 지역 | 검사기관 | 주소 | 연락처 | 대표 |
|----------------|------------------------|--|---------------|---------|
| | | | 팩스 | 담당자 |
| 경기 강원 | 한경대학교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축산기술지원센터 106호 | 031-670-5628 | 공홍식 교수 |
| | | | 0504-842-4615 | 윤지혜 연구원 |
| 충북 | 충북동물 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새동네길 39, 축산시험장 | 043-220-6301 | 최재원 장장 |
| | | | 043-220-6309 | 전순홍 팀장 |
| 충남 | GTNR 유전자원 연구소 | 충남 당진시 송악면 중흥리 224-6, 202호 | 041-970-0237 | 박인주 대표 |
| | | | 041-970-0237 | 박인주 대표 |
| 전북 전남 제주 | 순천대학교 |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생명산업과학대학 1호관 216호 | 061-750-3232 | 서강석 교수 |
| | | | 061-750-5321 | 송유나 연구원 |
| 경북 대구 | 참품한우 부설연구소 |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701-3, 참품한우 2층 | 054-971-8181 | 임영식 대표 |
| | | | 054-971-9229 | 김선혜 연구원 |
| 경남 부산 울산 | 경상대학교 GAST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451동 240호 | 055-761-1127 | 임현태 교수 |
| | | | 055-753-8767 | 박문성 연구원 |

알아두면 편리한 축산농가 소독 요령

겨울철 4도 이하 시 소독 효과 감소...

희석배율은 고농도로 맞춰야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독 요령으로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기다. 축사의 외부구역과 내부구역을 나누는 '방역구역'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구역은 가축질병 원인체 등 잠재적인 오염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하는

곳이다. 축사, 관리사무실 및 사료창고 등을 방역구역으로 관리한다. 방역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로 외부와 내부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방역라인 경계선을 그려주는 것이 좋다.



- ① 축사입구 또는 전실에 판자 또는 의자와 장화 소독조를 배치
- ② 방역구역 안에서 외부 신발과 내부 전용 장화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
- ③ 축사 안으로 들어갈 경우 내부 장화로 갈아 신고, 장화 소독조에 장화를 담가 소독
- ④ 장화 소독조는 유기물 세척 후 발등까지 폭 잠길 수 있는 높이로 소독약 맞추기

사용하는 소독약은 정해진 희석 배율에 따라 만들어야 하며, 겨울철 추위로 소독 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겨울철 4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 효과가 감소하므로 희석 배율을 고농도(유기물 조건)로 맞춰 사용한다. 또한 장화 소독조가 얼지 않게 소독조의 위치를 출입구 안쪽으로 이동하거나 열선 등의 보온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본회, 2020년 4차 이사회 온라인 회의로 개최 코로나 국면 민첩 대응...21년 수입지출안 의결

우리 협회는 구랍 23일 이사회를 열고 24억여 원 규모의 협회 2021년 수입지출안 등 상정된 협의안건이 원안대로 승인했다.

제 4차 이사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협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온라인 이사회였지만 사전회의 등 충분한 준비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결이 진행됐다.

협회 전용사료 공급현황 및 직거래 유통관련 사업 현황, 자조금 사업 추진현황, 정책활동 등에 관한 보고가 선행됐고 이사들은 한우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최근 하락하고 있는 우피(소가죽) 가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 및 소비다변화 사업구상과 사료원자재 가격 변동추이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우리 협회는 현재 다양한 한우 HMR제품 개발과 GS리테일(편의점)을 통한 근접상권 진출 등의 계획을 설명하고, 우피 값 하락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2021년도 첫 이사회는 1월 28일에 예정됐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시행중 `19.11~`20.6.30 출생 개체 참여 가능

우리 협회에서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자조금 지원개체 1만 마리와 농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개체 1만 마리를 합산한 총 2만마리의 미경산우를 비육하여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기준 대상농가는 3년(2018-2020) 평균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30마리 이하인 농가이며, 3년동안 송아지 생산 이력이 없는 농가는 제외된다.

대상개체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암소로서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 선발된 개체이거나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에 해당하는 개체여야 한다. 사업시행일(2020.12.24.) 기준 소유주 본인의 개체로 사업 신청가능하며, 프리마틴, 소유주 불일치 개체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두수는 1+1으로 1농가(농장식별번호)당 자조금 지원대상개체 20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20마리를 포함해 40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체에는 미경산 비육지원 약정을 체결한 뒤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는 한 마리당 농가보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협회는 2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암소감축위원회를 통해 대상농가 및 개체를 확정하고 농가와 미경산우 약정 체결 후 농가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진행되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많은 농가의 참여를 당부한다.



본회-GS리테일 업무 협약식 개최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한우 유통 다각화 및 대국민 홍보

우리 협회와 GS리테일이 한우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유통다각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우 제품 및 다양한 유통판매 정보를 교류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품 공동개발 및 GS편의



점을 통한 판매 등 한우의 소비거리를 좁히기 위한 활동에 임할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1월 13일(수) 11:00,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협약을 맺고 한우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간편식 개발과 판매는 물론, 향후 한우의 신선 소포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한우 공동사업 추진을 발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한우는 대형마트와 정육점 등에서의 직접판매가 주를 이루었으며, 가공식품 및 간편식 또한 저가 수입산과 국내산 육우제품이 대다수였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표 편의점인 GS25와 슈퍼마켓 GS THE FRESH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한우협회와 GS리테일이 콜라보레이션한 ‘한우먹는날 한우양곰탕’은 런칭 전부터 저렴하고 맛있다는 입소문에 현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1월 22일부터 각 GS리테일 입점 점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김홍길 회장은 “GS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들과의 삶의 제로거리에서 한우 소포장 판매와 다양한 한우간편식 제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에 기여되는 새로운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전농가 회원 동의서

우리 한우 산업은 지금까지도 많은 난관을 극복 해왔지만 더 안정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군의 협회 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농가 혼자서 해결 할 수 없고 한우 농가 전체가 함께 할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 전체가 전국한우협회의 회원이 되고 그 회비는 자조금 2만원 중에서 3천원을 협회비로 거출하여 지회·지부의 활동비로 사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한우 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절 취 선

전국한우협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동의서

본인은 한우자조금 2만원 중 3천원(한우자조금 17천원)을 전국한우협회비로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약속대로 한우산업에 요긴하게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 |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휴대폰) |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전국한우협회는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기 가입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국한우협회 귀 중